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잘』返還期日決定을 獨逸·聯盟에要求

一個月內移管手續해달라고

國際警備軍의撤退도

【쥬네브十六日發聯合】쥬네브駐剳獨逸總領事크라우엘博士는 十六日잘領域處理委員長아로이지男을訪問하고 될수잇는대로 速히잘領域을獨逸本國으로 返還하기를要請하엿다 右會見에잇서크라우엘博士은 特히左의二點을强調하엿다고한다

一、이미 人民投票結果잘領域의輿論의總意은獨逸本國으로의復歸를正式表明한以上될수잇는대로速히右領域을獨逸政府에移管할手續을取하기를바란다

一、理事會는 即時移管期間을決定하도록斡旋하기를바란다 右期間은一個月以內로思惟한다

【伯林十六日發聯合】잘人民投票에잇서서 獨逸歸屬派가壓倒的勝利를어덧슴으로 此에氣勢를어든獨逸政府는十六日 國際聯盟에對하야 左의二項을即時決定하라고 强硬한要求를提出하엿다고 確聞한다

一、잘을獨逸로返還할期日

一、國際警備軍의잘撤退期日

非公式으로要請 獨政府當局의聲明

【伯林十六日發聯合】잘領域의事態에對하야 强硬要求를提案하엿다는報道에關連하야 獨逸當局은 十六日午後 左와如히聲明하엿다 獨逸政府는 잘領域의返還、國際警備軍의撤廢에對하야·即時期日을確定하도록 聯盟理事會에 强硬要求를提出하엿다고하는데 公式要求를提出치는안코 다만쥬네브駐剳總領事 크라우엘博士가아로이지男과 會見하고될수잇는대로 返還期日을短縮하야 늣드라도今月以內에 獨逸政府가잘領域의統治에 當할수잇도록斡旋하기를要請한것으로 잘領域의歸屬遲延케할 理由는秋毫도업다 잘領域에關한限獨逸政府는 何人에對하여나 敢히讓步를要치안코自國의權利를 主張할수잇스리라고信한다

非武裝條項適用下 三月一日까지移管

『잘』小委員會決議提出

【쥬네브十六日發聯合】非武裝에關連하야 잘領域의歸屬問題는依然暗礁에逢着되엿다 十六日夜獨佛兩國專門委員이 아로이지委員長의斡旋으로 協議를遂한結果三月一日까지잘領域을 獨逸政府에移管하기로 意見一致되엿는데協定要旨는次와如하다

一、獨逸政府는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以下非武裝條項을잘領域에適用하는데同意함

一、잘領域은二月十五日 以降三月一日까지에 獨逸政府에移管함

右協議案은直時伯林에 通告되여獨逸政府는 直時受諾하리라고觀測되나獨逸委員은 잘領域에잇서戰略鐵道 其他交通機關의破壞에關한佛國政府의要求에는 갓작이應할수업다는立場을 堅持하고잇다 其他炭鑛通貨等 諸懸案에對하야二月十五日까지에 意見一致되지못할境遇에는 다시理事會의介入을要請할터이다

【電通쥬네브十六日發】伊太利代表아로이지男 西班牙代表오리왈及알젠틴代表칸텔氏로構成된國際聯盟잘小委員會는 十六日午後會合協議한結果

一、잘全土를分割치안코 獨逸에歸屬시킬것

一、歸屬期日은 三月一日午前零時로할것

에意見一致되엿고 그리고小委員會의決議로 聯盟理事會議長에게提出하엿다

聯盟小委員會서 提出한報告書要旨

【쥬네브十六日發聯合】아로이지委員長은 獨佛兩國專門委員의和協案에基하야 理事會에報告書를提出하엿다 理事會는十七日會議를開하야 잘領域의歸屬에對하야 最後的決定을나리리라고觀測되는바 報告書의要旨는 左와如하다

一、人民投票結果 잘領域의住民이 絕對多數로써獨逸本國에復歸키를希望하는趣旨에基하야聯盟理事會는잘領域이 獨逸本國에歸屬케하기로決定할것

一、理事會는 來三月一日까지에잘領域의移管을 完了한다는旨를同時에宣言할것

一、獨佛兩國政府는 這間에잘領域에關한 未解決의諸懸案에對하야協議를繼續하기로할것

二、獨佛兩國政府는 二月二十一日까지에 諸懸案에對하야妥協이成立되지못할時에는 理事會는臨時會議를開하고 獨佛兩國政府間의 紛爭問題에決定을與하기로함

英政府意見 如何境遇不拘 非武裝地帶化

【電通倫敦十日發】잘領域歸屬決定에關하야 베르사이유條約第五部의廢棄에關하야 英國政府는左와如히意見을發表하엿다

잘領域이 今回의投票結果獨逸領土로되여 假令獨逸이베르사이유條約의拘束으로부터 免除된다고해도 잘領域은依然非武裝地帶가 될것을信한다 그리고 佛國政府도同樣의意見을가지고잇다고 確聞한다

國際法廷加入案의 上院通過를希望

루大統領이敎書를發送

【華盛頓十六日發聯合】루즈벨트大統領은 十六日上院에敎書를送附하야 常設國際司法裁判所加入의必要를强調하엿다 敎書內容은左와如하다

余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加入의必要를認定한다 同案이上院을通過하기를 希望하는바이며 加入에際하야 如何한新留保條件을附하는데도 反對한다

米海軍航空隊 無事코港에着水

【크리스토발十六日發聯合】十五日午後三時三十分(日本時間 十六日午前五時三十分) 마시추세스州의 노폭을出發한 米國海軍航空隊의 巨人飛行艇六臺는 一九〇〇哩를 無着陸飛行後 十六日午後四時五十分(日本時間十七日午前六時五十分) 파나마運河南岸코코소로港에 着水하야 壯途를完成하엿다

町田氏의總裁就任 十八日까지回答

二十日開催되는黨大會에는 總裁로써意見披攊乎

【電通東京電話】町田商相은十七日夜或은十八日까지에 懇請委員에對하야 總裁就任受諾의回答을 行하기로되엿는바 爾冬來로遲延되여온總裁問題도비로소 解決되게되엿다 따라二十日黨大會에는 町田新總裁下에 川崎卓吉幹事長 永井政務調査會長이 總裁를補佐하고 賴母木氏를爲始하야十名의 黨總務를決定하야 黨의綱紀一新을圖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聯合】民政黨의町田氏는十六日에이르러 後任總裁就任을決意하고 黨의懇請委員과會見하고考慮하기로約束하엿슴으로 十七日一日熟慮한後 若槻、山本兩先輩와 會見하고黨과 自身과의立場이兩立하지 못하는老軀를 익글고不得已 受諾하기로決定하엿다는 首의意思를 披攊하고黨의 懇請委員에게는 十八日中에 正式으로 回答을行할터이다 그리고 黨의懇請委員을 爲始하야 首腦部는 各其 纔悟하야 懇請하는 同時에 若槻男도 十七日 歸東하는 即時로町田氏를 訪問하고 다시懇請하기로되엿슴으로 町田氏는來二十日黨大會에는 民政黨總裁로서 臨하야黨將來의方針과對議會策에對하야意見을披攊하게될터이다 (寫眞은 町田氏)

受諾決意事情

【電通東京電話】昨年秋若槻男의辭任以來 解決못되든 民政黨의總裁問題도 再開議會가 迫到된此際 겨우 解決되엿슴으로黨首腦部는 겨우安堵되여잇다 苦戰來頑强히 拒絕하든 町田商相은正月六日川崎卓吉氏와 同道하야伊豆伊東에잇는若槻男을訪問하엿슬때 若槻男은 前日 西園寺公을 訪問하엿슬時 總裁辭任의사를述하고後任總裁에는 町田君에게 반드시附托하겟다고 말햇는바 西園寺公도 黨內에서求한다고하면町田君以外에는업스리라고 同意하는뜻을表하엿다 此際暫時라도조흐니 受諾하여주기를 바란다고懇口懇請하엿스나 町田商相은依然머리를左右로흔드럿다 十一日山本男이 訪問하엿슬時에도어데까지 固辭하야當分總務會長制대로나아갈수업다는데 意見合致되엿다 그러나 實은山本男은昔日부터新黨이樹立되면 其總裁에宇垣朝鮮總督을 意中에그리고잇고同樣으로町田氏도近近或은 政黨의離合集散이잇서民政黨을中心으로하는 新黨이생기지안흘는지모른다 宇垣總督을總裁로推戴하려는腹案이잇고 따라宇垣總督出馬에對하야 山本男의胸中을探索하여본모양이다 町田商相은山本男이承諾하면 此를機會로總裁問題로부터 解放을求하야 當分어데까지總務會議制로나갈 생각이엿다한다 그러나山本男은 아직宇垣氏의 나올時이안임으 合으로거듭同男도訪問하고事態가 玆에이르게된理由를披攊하야諒解를 求한後 大體十八日中에黨의懇請委員에게 正式回答을行하기로 되엿다 이것으로二十日大會에는 商工大臣인채로 新總裁로臨하야 堂堂히演說키로되엿는데 三百萬黨員의總意로 玆에民政黨第三代總裁의 椅子에안게되엿다

國際危機第一年

藏相의財政演說注視

【東京電話聯合】再開議會에잇서 高橋藏相의 財政演說은來十八日定例閣議에서 決定할터인데演說은十年度豫算內容 一般的經濟事情說明을 行하는데끄치고十年度豫算의根幹이되는 赤字漸減方針及災害豫算에關하여는 說明을避할터로其內容은豫想外로平凡할模樣이다 過般閣議에서藏相이注意를喚起한滿洲에의 投資의抑制又는一般的增稅問題에關하여도何等再言치안흘 터이나 世界의現狀은國際的 平和實現에잇다는者를强調하는것은 國際危機第一年에잇는 六十七議會의 財政演說로자못注目되여잇다

中國의地位認識 緊密提携를企圖

獨立自尊主義의政策援助 外相의劃期的對中策

大國으로서의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一九三五年의 國際危局年度에當하야積極的工作에依하야 外交의伸張을圖할目的으로 各機關을督勵하야 着着實行에着手하고잇는데 特히 滿洲事變後硬直狀態에陷하여잇는 對中政策을此際반드시正道로 復歸케하야 眞正으로極東平和確立을 期하기를企圖하고이미蔣介石氏를爲始하야 南京政府有力者와 意見을交換하엿스나或은誤解를 어덧다고도한다 그리고廣田外相은 從來의外交方法을 脫却하야 中國을完全한獨立國으로하고 緊密한提携를策하려는것으로其方針은

『從來植民地로 看做하여온 列國의 傳統的政策을 排除하고 東亞에잇서 大國으로서의中國의地位를認識하야 될수잇는限 政治經濟上 中國의獨立自尊主義의對外政策實現을援助하는데잇다

外相은 이信念을再開議會에잇서 演說中에宣明하야 境遇에依하여는 自身渡中할決意도갓고잇다

八面鋒

◇ 民政黨總裁問題는 町田氏의受諾으로 豫定푸로그람대로 解決될形勢。

◇ 하라고 애를써도안되는 床次와실타해도 억지로맛김을밧는 町田이 한政黨에 잇슴도好一對。

◇ 입만쓴勇退命令、知事級은體面을차리노라고 唯唯諾諾햇스나 部長級이 못듯겟다고앙탈。

◇ 앙탈해도 쓸데업는노릇이지만 後藤內相에게는 골치압흔노릇。

◇ 먹을것업고 잘곳조차업스니 留置場에 두어달나고 懇請한靑年이잇다。

◇ 勇敢한 『룸펜』이라할가、그대의同志가 얼마나되는지 아는가

岡田首相의對議會工作進捗

十九日首相招待를 鈴木總裁受諾

內田鐵相의斡旋奏効

【東京電話聯合】岡田首相은 鈴木政友會總裁 町田民政黨總務會長 安達國民同盟總裁를 十七日부터 官邸에招待하엿든바 鈴木總裁로부터 拒絕하엿슴으로 岡田首相은 內田鐵相 吉田書記官長과協議한後 다시十九日招待키로하고 吉田書記官長은 岡田首相의使者로十七日午前十一時四十分 九段私邸에鈴木政友會總裁를訪問 十九日午前十一時官邸에來臨하기를希望하고現下時局에對하야 相議할것이잇스니出席하기를바란다는旨를 述한데對하야 鈴木政友會總裁는 十七、八兩日은黨의形便으로 모처럼의招待에應할수업는것은甚히遺憾이다 十九日은多幸히用務도업슴으로 出席하겟다는旨를 答하고種種懇談한後午後零時二十五分會見을終了하엿다

【電通東京電話】內田鐵相은岡田首相과 鈴木政友會總裁와의會見에關하야 種種斡旋한結果岡田首相은 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午後一時까지의 時間을利用하야鈴木總裁를 官邸에招待하기로 決定하고 十七日午前十一時半 吉田書記官長을 九段坂上自邸에鈴木總裁를 訪問케하고 다시首相의뜻을傳하야 招請한바鈴木總裁는 出席하기를快諾하엿다 따라十九日午餐會에는 岡田首相、鈴木總裁外에 町田民政黨總務會長도同席하고 形便에따라 高橋藏相과床次遞相도 出席하기로되엿다 (寫眞은鈴木總裁)

出席을快諾後 鈴木總裁談

【電通東京電話】吉田翰長은岡田首相의뜻을바더 十七日午前十一時三十分 九段私邸에鈴木政友會總裁를 訪問하고十九日正午에永田町首相官邸로 正式招請하엿든바 同總裁도此를快諾하엿다 書記官長은 種種懇談하고正午辭去하엿는데 鈴木總裁는私邸에서左와如히말하엿다

昨日에는 十七日正午首相官邸로오라고햇스나 十七、十八兩日은 黨務形便上辭絕하엿다 그러나 今朝에이르러 十九日正午에招待한다는申請이잇섯슴으로同日이면夜間에는 支障이잇스나 晝間은形便이조흠으로出席하겟다고 對答하엿다 午餐會席上에서 政府로부터여러가지議會에對한이야기가나올모양인데 政府가議會에臨하야 誠心誠意를表示하면 無論國家를爲하야 我黨도充分考慮하기를不吝한다

民政國同兩黨首 于先招待코懇談

所信披攊코後援懇望

【電通東京電話】再開議會를압두고 岡田首相의 議會工作의第一着手인三黨首招待는 鈴木政友會總裁의 出席拒絕로 內容과形式이 疎하게되엿스나 豫定대로十七日正午永田町首相官邸日本間에 町田民政黨總務會長 安達國同總裁兩氏를 招待하야 懇談會를開하고 政府側으로부터高橋藏相 床次遞相兩長老閣僚가 介添役으로 出席하야 一同은 午餐을마친後直時懇談에入하엿다 于先岡田首相은第六十七議會에 臨함에當하야 政府의方針을說明하고現下內外諸情勢는諸所에 一致하야 難局을突破할必要가잇다 그리고明年度豫算及政府에서 提出한諸法律案은 기어히通過成立식힐必要가잇슴으로 此際兩黨의援助를切望한다는旨를懇曲히述하고 所信을披攊하야 諒解를求하엿다 此에對하야 安達國同總裁로부터 豫算問題、農村對策問題 財政問題其他에對하야種種意見을開陳한바 高橋藏相 床次遞相으로부터 各各補足的說明을行하고 其他時局問題에對하야種種懇談을거듭한後 會談時餘에亘하야散會하엿다 同懇談會는和氣靄靄裡에終始되엿다

山崎農相 藏相을訪問懇談

【東京電話聯合】通常議會의開會도 切迫되엿슴으로 政府는其對策에萬般遺漏업기를期하고잇는데 山崎農相은 十六日午後三時半高橋藏相을 官邸에訪問하고 對議會策을 中心으로種種懇談을遂하고 同四時二十分에 辭去하엿다

黨大會準備의 民政黨長老會議

【電通東京電話】民政黨은來二十日黨大會의宣言文及總裁의演說內容에對하야 十六日午後二時부터 町田商相官邸에서長老會議를開催하고 對策을協議한後大體로此를決定하엿슴으로 正式으로十七日午後一時半부터總務會 同三時부터幹部會를開하고 此를附議決定하기로 되엿는데 與黨的立場上政策은宣言中에 適當히編入식히엿고 黨의主義主張을 明白히하고演說에는 特히民政黨으로 現內閣을支持援助하는 所以를力說하엿다 그리고 町田商相의總裁受諾後에잇서 同黨의與黨的立場은從來보다 一層濃厚하게될實情에잇다

鈴木總裁는不起 島田氏를第一陣에!

政友會의對議會陣容

【東京電話聯合】政友會는再開議會의 對策을決定하기爲하야十六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院內外總務會를開하고 加藤、島田外各院內總務 東、山口外各本部總務若宮幹事等이出席하야 于先本會議의各國務大臣의 演說에對한質問者를左와如히決定한後 時局問題에對하야懇談을거듭하고同五時散會하엿다

▲一般施政 島田俊雄

▲財政經濟 大口喜六

▲思想教育 安藤正純

▲社會政策 岩崎幸治郞

▲農村災害對策 高橋熊次郞 田子一民 加藤鐐五郞

▲外交 芦田均

【電通東京電話】鈴木總裁로하여금 議會劈頭政府의施政一般에關하야 忌憚업시論斷을나리게하기爲하야 久原、若宮兩氏는總務會의意向을體하야 十六日午後四時十分 九段私邸에 鈴木總裁를訪問하고 種種勸說에努力하엿스나 總裁는『自己의이러날時期는다른機會가잇스리라고 思慮으로此際는이러날것이안이다』라는意見을漏洩하엿슴으로 兩氏도總裁의뜻을따르기로 議會對策其他에關하야種種懇談을거듭하고辭去하엿다 따라政友會의質問陣은島田俊雄氏가 第一陣에서기로確定되엿다

人事·集會

▲林財務局長=議會出席次十七日午後三時京城驛發渡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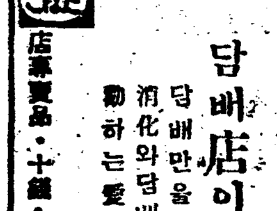
重症用 毒掃丸 (독소환)

梅毒에는學問上의理論과 臨床上의實驗에依하야된 沃素療法으로……

重症用毒掃丸은許容最大限度의沃素를根幹으로한最新製劑요. 初期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先天梅毒、冷毒、小兒胎毒、梅毒性皮膚病、同神經痛、同루마치스、癩疥、痔核、惡性여드름、動脈硬化、甲狀腺腫、瘰癧等

藥價 重症用毒掃丸二圓、三圓、五圓、十圓、廿圓、卅圓 普通用五十錢、一圓、小兒用卅錢、五十錢、一圓

東京神田花房町 株式會社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番)



담배店이、只今은 담배만을파는집이안이라 消化와담배의맛을내는香錠을勸하는愛煙家를爲한집이다

店頭賣品·十錢·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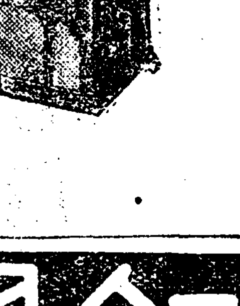
仁丹香錠

仁丹本舖·森下博營業所

ポリドールレコードは 洋樂·鮮譜·邦樂 全部具備하얏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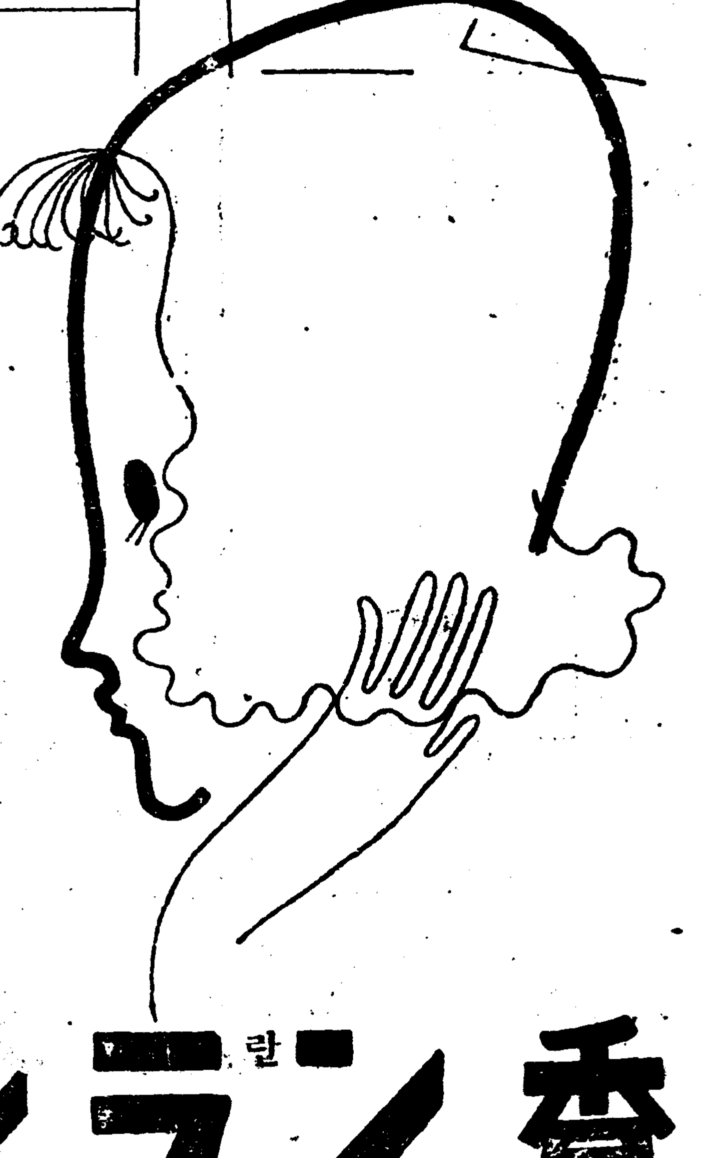
ポリドール蓄音器 三五號型 三拾五圓 二〇〇號型 七拾五圓 手提 三拾八圓 外電氣蓄音器等各種

ビクターレコードは 洋樂·鮮譜·邦樂 全部具備하야잇슴니다



ビクター蓄音器 手提J二ノ五 五十圓 箱型J二ノ五〇 四十五圓 同J一ノ七一 六十五圓 同J一ノ八一 八十五圓 同J一ノ九一 百二十圓 外電氣蓄音器各種

山口樂器店鍾路支店 京城鍾路二 永保ビル



油香 ランラン (란란)

로-스크림 마른버즘과 겨울살트는데 약으로쓰며 살을공단가티 보드럽게! 매끈하게! 화장생색을 뵈신더냅니다

로-스本舖 京城西大門外 蘇薇堂

流行歌 휘파람 獨唱 高福壽 오케-레코-드 (1728)

朝報案內

外線電工募集 希望者는早速來談을要함 京城府大和町一丁目五六 島田商會

有給 女中數名入用 年齡十五歲迄ノ者衣服モ當方デ支給ス 龍山すし駒 電話龍山九五五

採用 男女 地方殿讓七長 郡一名

植字工數名採用 經驗잇는분은履歷書를朝鮮日報社印刷部로郵送하시오 (面談謝絕)

淮陽에飢民五千戶 緊急融資를陳情

十二萬圓을國費와低資로 住民代表總督府訪問

강원도 회양(淮陽)군은 금년의흉작과광해때문에 농사는 산간지대는전멸상태이고 기타평지도 칠할밧게수확이 업는상태임으로 이에대한당국의 긴급한구제를 청하기위하야 군민을대표하야송대규(宋大奎)씨가십칠일에 총독부를방문하고다음과가튼 의미의 진정서를 총독총감에게제출하엿다

회양군내의 리재민은일천이백오십이호인데 그중 일천삼백오십이호는 자력으로나려보장조(降保相助)로연명할수잇스나 사천구백호는긴급한구제가필요한상태이다

그리고 전긔사천구백호를 칠월까지에 구제함에 필요한 곡물(粟)은 일만이천구백 사십일석으로 그절반인 륙천석의대금십이만원을 총독부에서 삼개년간의 년부상환과 군민의련대보증을조건으로하야저리자금을 융통하여달라는것이다 또 춘궁을압두고 농가에는 종곡(種穀)이하나도업는터이니종곡대금마저 [illegible] 저리로 융통하여달라는것이라 한다

현재리재민은 먹을량식이 전연업서 초근목피로연명하여가는 터인즉천고의량식은금년칠월까지에필요한것으로매우긴급하오구라한다

可恐할酷寒과饑饉

絶糧된火田民 死活岐路서彷徨

普通農作四割減燕麥은全滅 窮地에빠진江界農民

【江界】지난해는 전조선을 통하야 농촌농작을보게되엿것은 세상이잘아는바로 삼남수재등지는 세인의이목이집중되고 다른지방에 착렴할여가가 업시되여 그사실조차인식치못하게되엿다 그런데그보다 농민자신도 예측치못한사이에 오늘의참혹한농작의 참경에빠지게된것이다 녀름에는 련일나리는장마비가개이기만고대하고 잇섯더니 가을이느저가도록 『래일이나래일이나』하고지내는동안에 비가개이자뒤니여 서리가나리고 말엇스니실낫갓흔희망도수포로도라가고마릿것이다 이가튼피해는평안북도일대에 미치엇스나 옥지가우심하여강계(江界)지방은전군을통하야 농사총전부가 재작년소화팔년도보다도 평균사할이 감수되엿다 녀례로보와 륙수히흉풍의영향이적은『쌀』농사가 총수확고사만삼천삼백팔십석으로 전년 소화팔년도 오만이천오백구십석에 비하야 이할이 감수되여 단당(段當)수확률로보면 매단 재작년에 한석팔두나든것이 아홉말에덜흥으로 감소되엿고 속(粟)은 전년 소화팔년이 구만칠천삼백석이든것이 작년에는 오만사천오백오십석으로 매단 당일석일말나든것이 너말두되 세홉으로 감수된것이다 그러나이것은 다소의수확이라도 잇섯스나 강북、룡림、립관、성간(江北、龍林、立嶺、城干)네면을중심으로한화전민(火田民)의중요작물인『귀밀이』(燕麥)은전년과가티 전멸된상태이니 밧헤서 나는것은 한알곡식이업고 엄동설한에 초근목피조차 구할도리가업서서 하로에한때죽도 곤란한수업서 절식의 창황에빠저잇는것이 화전농민의 전부인바 하여간치운겨울동안을 지낼도리가막연하야 헐벗고 배곱하 신음하는형상은참아볼수업스며 그들의압날은 묵과할수업는문제이라한다

◇薄氷이 건너집힌 漢江…십칠일아츰촬영

夜來의酷寒으로 市內에僵屍二件

可憐한街頭의乞人群

추락 추락 도추락……십륙일이래수은주(水銀柱)는 령하십삼도까지 갑자기떨어저서 집업는『아스팔트』를 『룸펜』군들의 지옥의날이 시작되엿다 아니나다를가 과연십륙일밤부터 십칠일아츰까지의 사히에 종로서관내에서만 이첫추위의제단에바친『룸펜』의동사체가 세개나발견되엿다

십륙일오후열한시경에 수창동(需昌洞)뒷골목에서 나히사십세가량의 거지비슷한사나히가 동사한것이 발견되엿고 십칠일오전일곱시오십분경에는 광화문통(光化門通)칠십팔번지 순사강습소서문안에서 나히 삼십이세 가량의『룸펜』의동사체가발견되엿고 십칠일오전여들시 오십오분경에는 역시광화문통 순사강습소와 도청사히의길가에서 이십삼사세가량의『룸펜』이 꺼꾸러진채어러서 시체가되여 발견되엿다 이승에 살자니 집이업든 그들은죽은뒤에는 령혼은아마천국이아니면주장지옥으로 갈것이나 성부지명부지 엽자업는 그시체는 대체어데로가나? 혹은 부의손으로 매장되기도하고 혹은의학교의 실험대로 운반되여미래의수업는 의사들을위하야 실로최후의『써ー비쓰』를비치는것이다

中江鎭零下三十一度

酷寒半島掩襲

木浦는零下二度로

마츰내 추이는왓다 경성의십칠일아츰최저기록은 령하십삼도로 이것이 위선금년겨울의 최저기록이어요 도정오까지도 령하팔도오부이니 역시최저기록이다 청량리(淸涼里)논에는십륙일부터오래두고버르고버르든스케ー트군들이 세상을맛난듯이 날뛰고팡팡 어러붙은 아스팔트위로는석탄마차가용기잇게해진울하고잇다 그러고추이는 압흐로도계속이되다하니 매칠후면한강의은반이열리어정히 윈터ー스포ー츠의시절을당하게되엇다 다만념려되는것은 좋한으로해서 보리뿌리가 얼지아니할까 하는것이다

추이는 서울뿐이아니라 전조선각지가 모다비로소 령하에서쑥내려갓다 십칠일아츰 여섯시현재로보면 가장기후가조타는 목포(木浦)의령하 이도를 위시하야 중강진(中江鎭)은 령하삼십일도! 그밧게각지의십칠일오전여섯시현재의기온은다음과갓다

▲釜山零下五度▲大邱零下六度▲全州零下四度▲仁川零下十度▲江陵零下九度▲元山零下十度▲平壤零下十三度▲新義州零下十九度▲雄基零下十九度▲中江鎭零下三十一度

朝鮮柔道界의 有段者會創立

來十九日에創立總會開催

朝鮮柔道界의 有段者를網羅하야 朝鮮內에散在한有段者會를 統一機關으로 結成코저 來十九日午後六時半부터 市內仁寺洞明月館本店에서 朝鮮有段者會創立總會를 開催할터이라는데 有段者諸位는 無漏來參하기를바란다고한다

趣旨書

오래동안 文弱과分裂에시달녀오든 우리의모든文化는 衰退하엿다 이러한문련진터에 새로운文化를建設하고저 우리의精神과肉體를鍛鍊식히기爲하야 우리의先輩는二十七年前柔道를、새로운武術로이半島에輸入하엿스며 또는우리의모든 [illegible] 를投하여가면서 所 [illegible] 努力은今日의朝鮮柔道界를形成케하엿다 그러나아즉도同一한目標와 同一한部門에屬한우리는자리를가티하야 技術的 [illegible] 의巧을차즈며 親睦을圖치못할機會를엇지못하엿다 이엇지柔道를朝鮮에輸入하야 獎勵하는社會的企待에 背馳됨이아니랴? 이에猛省한 우리는 오즉現實에立脚하야 將來의 希望만을바라고朝鮮柔道界의 躍進을爲하야同志를모아 技로鍊磨의 巧을차즈며 精神的으로 協助와犧牲의마음을修練코저하야 朝鮮柔道有段者會를創設코저하오니 참으로朝鮮柔道界의 統一과發展을 爲하는朝鮮同志여는한데모히기를 바라노라

一九三五年一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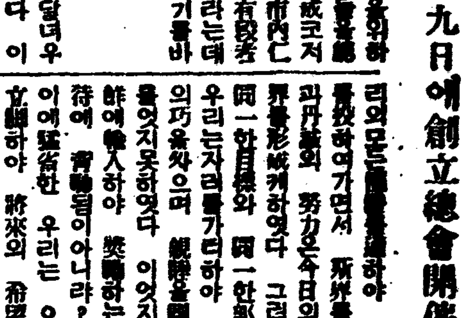
◇發起委員

鄭淶仁 李仁 [illegible] 朴 [illegible] 李東 [illegible] 李 [illegible] 見 [illegible]

京平籠球戰

崇商軍昨夜入京

明十八日부터 鍾路YMCA에서



열리는 京平中等對抗籠球戰에出場할 崇仁商業軍(平壤代表)은昨十六日밤九時五十分京城驛着列車로 監督 [illegible] 永氏引率아래入京하야 貫鐵洞信行旅館에投宿하엿다 (寫眞은十七日本社來訪한崇商軍)

第一回 全朝鮮女子氷上大會

競技種目 二百五十米 五百米 千米 千五百米 二千米릴레이

日時 二月二日午後一時

場所 漢江人道橋下特設링크

申請 一月三十一日까지 [illegible] 氏에게로 (參加金不要)

主催 朝鮮女子體育獎勵會

後援 朝鮮體育會 朝鮮日報社

新建設社事件 檢事가連日取調

警察에서는아주손을떼이어 取調딸아刑務所收容

【全州】전북경찰부에서 확대검거를하여오든 신건설사(新建設社)사건은 지난 십사일로 일단서류만은 송국이 완료되엿는데 현재오십여명피의자중 약삼십여명이 송국되리라는데 그들은종래 면사건과가티 일시에 송국자전부를 검사국으로 송치하지를안코 검사가 일일이취조를한후 하나씩송국식힐모양이라는데 지난십오일、십륙일에도경찰부형사의 인솔로 사오인을 검사가취조한후 무엇인가 더취조할바가 잇섯든지 도로 류치장에 너허두엇다

橫川警部談

지난십사일에 서류가 송국됨에 도착하고 피의자다수가 그대로 유치장에잇스며 검사의취조를 밧고잇슴에 대하야 도고고게주임은다음과가티말한다

신건설사사건에 대하야는 경찰부와는 아무관계가업시 일건서류가 검사의손에넘어갓스니 금후에대한것은 자세히는 알수가 업스나 금번피의자등의 신체송국에대하야는 검사가임의히 유치장에두고 취조를 하여가면서 하나둘식그대로、수용할는지도 모르오 그리고철대로 다대수를 일시에송국치는안흐리라고밋습니다

羅津電話에 自働式交換

총독부체신국에서는 일죽부터 신흥도시 라진(羅津)에 자동교환전화장치를하려고 이공사를 진행식히든중 근근완성의경지에 도달하얏슴으로 체신국공사과에서는 항성(恒成)고공(高官)량기수가현지에출장하야 본장치를검사한후 오는상일경부터 일반의통화를 개시하게되얏다 그리고 라진의가입자는 목하는겨우삼백칠명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경성중앙전화국의 자동교환보다 먼저조선의 자동전화로서는 제일처음의 장치이다

郵便物遞送에 스키ー隊活動

북부조선과 동해안일대를 엄습한 줄한과 눈으로인하야 각지의자동차선로의교통이 두절되고 따라서 편우체송에도 다대한지장이 생기엇슴으로 체신국에서는 그대책으로적설지방우편국소에스키ー를배치하야 체송부들에게 미리련습을식혀온터이다 일단체송경로가 두절되면 그들체송스키ー어를 일제히동원식혀일반우편물의신속체송을하게되엇다 그리하야 원산우편국의오십대를 최고로각지에 상당한스키ー를 배치하야압흐로 만전을기하게되엇다

仁川郵便物노소미에

종래경성에서 오전십시와오후십시의 렬차편이회를 리용하고잇슬뿐이엿는데 작십륙일부터 인천방면 우편물을 오후세시경성발『노조미』호에도탑재하야민속을다하기로되야잇다

京城府行政機構 部制로改造企圖

內務와産業또는內務와經濟로 總督府側에서指示

경성부에서는 서무과와감사계(監査係)를신설하기로결정하고 이달중에는인선이끗나는대로실현될터이라는데 그러나 총독부와부청에서는 근본적제도개혁이 필요한것을인정하고 그간각기 독자적립장에서 개혁안을연구하엿섯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최근적극적개혁방침하에 십일년도부터 사무제도의 개혁을단행하고저 경성부에 대하야『소화십일년도 예산편성과까지에 개혁안에대한 구체안을작성하야 제출하라』고 통첩을발하엿섯다 그런데 종래에는 경성부의 개혁에대하야는부(副)부윤의 설치설 등주상석의견밧게 업섯슴으로 총독부에서는 부제(部制)를실시하야 내무산업또는 내무경제등두부이상을 설치하는외에 토목과와 수도과도 국으로하나 또는 부로승격할것 여하는 경성부의의향여하에 잇다할지라도 경성부에서도 부제실시의 희망을가지고잇섯슴으로 결국총독부의 주장과가티 십일년도부터 부제(部制)의실시를보게될것으로보인다한다

京圖線明月溝서 共產軍死傷五十

家屋의燒失도五十戶

【吉林十七日發聯合】지난십삼일 이래만주 경도선명월구(京圖線明月溝)남방지구에출동중이든 금자부대는 련일련야산악지대의 제이구간에잇서서 적설과 혹한이심한가운데서 공산군토벌을 하고잇는중공산군을 격파하면서 그근거지를복판하고 토벌을계속중인데 동지로부터 토병을입소하기는 최근수일동으로 예측이된다고한다 십륙일신참(新站)의사령부로부터도달한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의쌈에공산군이 유기한 사체사십、부상십여、소실가옥오십호이며、일본군은 손해가 업섯다한다

土地代金의二、三割 作人에負擔을强要

小作料도大槪八割徵收하는 全南의小作惡慣行

【光州】재래에잇서서의 가진 수단으로소작인의고혈착취에 여념이업는 전남일부의 지주배들은 최근에이르러서는 언어도단의신방침을쓰게되엿다 그실례를 렬거하면 토지매수대금 삼사할식을 의례로 작인에게 울려되는 마일잇스면 지주변경되엿다 소작권 취소를할예방하야 토지대금 보조가 의례의일이요 정당한 시가를주고 산다할지라도 지주들이 터내지안코지가를올리게되다 그실례로는 봉림리(鳳林里) 김부호의작인 박성문(朴成文)이가룩두락작료열두섬 된것과고흥(高興)김부호의작인 리인순(李仁淳)이가오두락작료아홉섬된것으로부터전남지주치고는 전수확의딸구할식 안밧는자가 불과몇명이요 전남소작인치고는 반분작농한자가 불과일할밖에 업다 지령(農地令)을시행식히는이소작관행(小作慣行)을개선하느니소작쟁의조정법을제기하느니하는것도별로효과가업고 부채정리(負債整理)며 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등의 은덕입을생각까지 몽외청산(夢外靑山)격의딴한처지에서신음하며굶주리는창자에의복까지헙버슨 그들의참상은 목불인견이라고 한다

飛行機사라는 遠來의勸誘

米國서京畿道에

금번경기도에는 미국『오하이오』주『클리ー블랜드』에잇는『아메리카·에아웨이』회사의 『메네저ー』『스토ー런』씨로부터 려객기를 헐가로 팔것이 잇는데 팔겟느냐는 권고의편지가왓다 즉그회사에서는 금번회사소속의 항공로에사용 하기위하야 수용력과능률에잇서서 매우우수한신형 려객기를 구입하고그대신에지금까지쓰든 십륙기를판매하기로된것이라고한다 아마도 그규모에잇서서 근래에드문큰거래권 유나경기도로서는 도저히 그러한거래를 수응할도리가 업다

保寧의大賊이 京城에潛入?

십오일 오후열한시부터 십륙일오전다섯시까지의사이에 충남보령군 대천면대천리(保寧郡大川面大川里)정미업 고경종(高敬鍾)의공장에는 어떤자가 공장주위에처노흔철조망을끈코 침입하야 사무실문을깨트리고 실내에까지 드러와서 중요서류와 현금이천륙십오원을훔처가지고 도망한사건이 잇섯다 범인은그후경성방면으로 탈주한혼적이잇서서 소관보령서에서는 십륙일밤시내각서로 수배해왓스므로 방금구년말의 예비경계에드러간 시내경찰은 더욱긴장하야각방으로 범인을 수사중이다

郡部와도連絡 舊年末特別警戒

만일의사고가업도록전력할터 明日부터豫備警戒

일천여백명의경관을동원하야거리거리에 군도소리도 신산하게삼엄울극한 시내의지난 년말경계는실로아모러한 사고도발생한 것이입시국히 평온한가운데 마음다첫거니와이제 구년말이또 다시면전에 대기하고 잇는이때 경기일대의경찰기관의 총본영인도경찰부 에서는이구년말도 역시만전을 기하기위하야 특별경계의 방침을대략아래의방면에 주안을두고 명일부터예비경계를 시작하야 구년말최후의십일간을 그야말로 전원총동으로 로물도새지 아니할경계를 할모양이다 위선 구년말은 조선인부락이중심임으로 경계도 이방면에치중하고 그러고 은행회사가튼 대금융기관을 비롯하야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일이 만흔곳으로 에주력하며 래년의경찰에 의하야 시내의경계가 엇중하면 군부에서도 시내와호응하야 군부방면의 경계를 철저하게할계획이라고 한다

公州邑電料引下

十六日에正式認可

공주(公州)전기는본년이월신설의 전기료금의 개정기를당하야 전기료금인하에 의한신료금인가를 체신국에 신청중이엇는데 작십륙일 정식으로 인가되얏다 이것은정액등(定額燈)일할사분、종량등(從量燈)일할륙분、전동력(電動力) 이할을 각각인하하게되얏다

天氣豫報

北西風、晴

七七四미리의 高氣壓은中國北部에서 朝鮮을거처 日本에며지고北海道東方海上에는 七三○미리의低氣壓이잇다 南西部는曇、其他는 天氣가조코一般으로北西風이弱하고 氣溫은木浦零下二度와 中江鎭零下三十一度間에잇서서 昨朝보담五度內外내렷다 明日도天氣는조코추이는繼續되다

昨日最高 零下六度八

今朝最低 零下十三度

今日正午 零下八度五

スメツ 芳香油

생기잇게넘치는젊음을!!

スメツ 스메쓰

겨울의살결에……

スメツスキン크림

젊음·明朗·아름다운生地의魅力도

化粧의빗남도·모도가スメツスキン

크림으로부터

スキンクリーム 스킨크림

¥·50 ¥·35 ¥·25

スメツ 芳香水

本舖 合名會社 天保堂 東京

어찌하리까?

두남성에게에워싸여 고민을 는한녀성

問 나는 소위 인텔리녀성중의하나오나 내자신의문제를 내스스로해결치못하고 외람히지도를청하나이다.

나의사정이남달리 복잡하달는지 그만사정에억매는내가어리석다하올시 그것은선생님의판단에맛기고 친절한하교를고대합니다. 저는일즉이한남자를사괴어 약혼까지해노코보니 그남자는이미기혼한남자로 아들딸까지에형제를나허노핫습니다 그것을안다는 한번 그를원절히책망하고 파약을선언한후다른어떤남자와 다시약혼을하얏더니 그남자가죽는다산다하며 매일가치울고 쪼차다닙니다 그남자의하는것이 인정상가긍치안습니까? 그뿐이아니라오 [illegible] 까지않니까! 현재안해와리혼을조건으로 그남자와일생을가치할까요. 그것이 죄악이나아닐까요. (美玄生)

나종의약혼자와 결혼함이조켓소

答 그남자는 당신을 극도로사랑하고잇고 또당신도 거긔감동된듯합니다. 그러나 그의현재안해를 리혼하라고하고 고만 그와결혼해버리어도 좃습니다. 그러케하는것이 죄악이 아니겟느냐고요? 요새세상에 보통잇는일이지 고 왜당신만이 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답은 업습니다. 그러나 나종에 [illegible] 차 어떠케 하 요? 당신의고민은 실 그남자의 안해를 리혼시키느냐안느냐에 잇는것이아니요 오히려나종약혼한남자를 어떠케하라는데잇스리라고추측됩니다. 그뿐이아니오라 일시일시의 감정적행동으로써 곳사랑의 기피를一때는것은 무모한일입니다. 청년남녀의련애가 그처음에잇서서는만히들가시도는거울지오만은 그뿐이다다서 재가되는동시두사람의 련애가파탄나는 예도 드물지안습니다. 웬만하거든나종에약혼하신그이와 그대로결혼하십시요. 그것이 오히려특당한해결책이아닐까 합니다.

家庭

푸닥거리 묵구리 지너귀 대감노리

제발 마십시요 비노이다

귀신은 당신의마음속에잇소

두달석달 안잠이월급을못주어 봉변까지 당하면서도 사주나상을보든데는 그래도어떠케든지돈변통이되답니다 안잠이가알까바 쉬쉬해가며 옷나부랭이와 금은부치를잡히어가지고 몰래나가시는마님이나아씨가 가엽다면가엽고 딱하면딱합니다

그나그뿐인가요? 돌아간시부모를생각하야 울어보지못한 마님도 잡씨이름하자고하다가 남편의구박을 만나고는 눈이붓도록 울며 살아잇는 부모에게는 효성과 당을쌋든 아씨도 지노귀새남을해드리자고하다가올게의 **반대를** 당하고는 가장 효녀인듯이 떠들어제칩니다. 또그나그뿐인가요 친척에게는 쌀한톨을발벌떨면서도 중에게는 말살을시주하고자 긔자불공부등스군에게는 헌옷한가지를 앗기면서도 장님에게는죽 버선을선사하는 부인네도업지안습니다.

×

그야상생이나 사주쟁이의집을 가보면 깍근머리에양복을잘순개화스군도잇고 심지어 무슨회의 일장이니 위원이니하는사회적 일스군도잇지안습니까? 그들보담부식한 **부인네**야 더말할것도업지요 그래도그들은 입을열어 미신타파 바로조선안미신은자기혼자혼지럴어 버린것처럼 부르짓지안습니까? 아마그들도랑심이잇다면 그런말할때는 좀얼골이붉어지겟지요. 그러나사내들보담 부인네가더만흔미신을가지고잇다는것은 틀림이업는사실입니다. 부인네들이 하로밧비미신을버리지안는다면 미신에가득찬오늘날우리들의 가정은 좀처럼개혁되야 될도리가 업습니다.

×

일껏밥을세주워노코 그세스방든사람때문에 **동틔가** 낫다고 굿하기를 명령을 나리는 사람도잇고 일껏새세간을장만하야노코 그세간때문에 재물이빠진다고 헐가방매하는사람들도잇습니다. 아니그보담도 아들난지 삼일이라고 형이나형수장사에 와보지못하는량반들도 업지안습니다. 삼안에병이나면 의사도안부르겟습니까? 그러타고그의사가 식구의시체를안보앗스리라고 어떠케 맛겟습니까? 또설사삼안에송장을 보는것이나쁘다기로니 형제간의 정의로도 그럴법이 잇습니까? **괴괴한** 일이 아닙니까? 외국사람들은 삼안에송장을만지고다녀도아모탈이업답니다. 엇재서조선의산모와산아만이 부정을탄다는것인지 까닭을모를일입니다.

×

부조의뼈다구니를사가지고다니며 명산대천을펼라무든우리조상의자손이 그러치안한외국사람의자손보담더낫지못하고택일해장가든우리의가정이 그러치안한외국사람의 가정보담더낫지 못합니다. 그와가치아모리 묵구리를해보고 **액맥이**를해보더라도 조하질 우리의 장래가낫버질리도업지만 낫버질 우리의장래가 조하질수도업습니다. 만일그러케해서부자도 되고 귀인도되고 아들도날수가잇다면 무당 판수 점쟁이들이 제먼저 그러케될것이아닙니까? 왜남의 신수팔자를 봐주어가며 돈푼을 어더 호구를하겟습니까? 수다한부인네들은 저편짝에무르러간 것보담도 이편짝의사정을아리키려갓습니다. 그럴차하게속을빼아 그럴차하게꾸며대면 그것이용타고 흥딱반하야 이집저집돌아다니며 돈안밧는 **광고원** 노릇을합니다. 그러키에 네로부터 이른말이 지내일을 알아보고 [illegible] 내는 사주나 남을 압아내는사[illegible] 다고하지안습니까? 그사람의속을 뚫어도로 만 안님이야 저나네나 다같할것이아닙니까?

×

옛날의 에급사람들은 죽어든사람이 몃천년후에 다시살아날수잇다고 죽은송장을 썩지안케 약을칠해 두엇더랍니다 그러나 그송장이 다시살아나지못하고지금 각국의박물관으로 떠메어다가 각국사람의 구경거리가되입니다. 또어떤지방의 **야만인**들은 꿈을생시와가치 압아서 꿈에맛고 죽은것을 생시에 복수하려덤빈답니다. 그러니 그지방에서는누가 어느때꿈을 떼케꾸고 복수를하려 뎀비는지 실로 무시무시하야 견될수업는 노릇입니다. 이런이약이를 드르면 좀웃읍습니까? 그와가티당신네들이굿하고점치는 니야기를 외국사람이들을때에는그들도 웃을일이아닙니까?

우리네 가정안의 모든미신을 하로밧비 털어버립시다. 그래서 참으로 개화된가정을 맨들어봅시다.

옛날의 어떤사람이 울잇는 독갑이를모다 쪼차서 항풍으로 보내다고하지만 우리는조선잇는모든 독갑이를 모다몰아서 멀리멀리 쪼차 버리어야합니다. 독갑이가 업다고믿기만하면아모리독갑이들이안쫓겨가려고 하더라도제절로 쫓겨갑니다

이호텔은安全!

황금의나라미국이라맛잘 에만원의보석반지를끼고다니시는 신녀숙녀도만치오만 깽의나라미국이라 호텔에든 손님의보석반지가 감쪽가티업서지는수도만습니다 이래서는호텔도못해먹겟다고 약삭바르고눈치빠른 로산젤스의어느호텔 주인은문부터 뻣이어히까지모조리 지문(指紋)을떼노코 미국국긔아페서구든맹세를지어 손님을 끌려고야단입니다

(사진은호텔주인이그호텔에서 일하는사람들의 지문(指紋)을 떼두는판이다)

新聞外뉴스

삼년동안이나 잠을잔미인

미국『쉬카고』에『잠자는미인』이라고해서 학계의한수수꺼끼를맨든『파토리샤・매길ー』은이년십개월동안을 내리잠자다가겨우 눈을뜨기시작햇다는 이야기 『타이피스트』인그녀자는삼년전일천구백 삼십이년이월 십오일『타이푸라이터』압헤서일하다가 긴하품을한번하고나드니 그길로 길흔잠에빠지고마럿습니다 흔드러도, 꼬집어도 소리처도깰줄모르고잠만자고잇섯습니다 그래서 그의어머니는 심성한듯이 사방으로 의사를청하야치료를바더보앗스나 종시듯지안햇습니다 단지 인공영양법(人工營養法)으로오늘까지 생명을보지 해왓읍니다 그런데일전에는 우연히잠자는미인이 눈을떠서그어머니가조와서 춤을추일이잇습니다 그어머니는딸『파토리샤』에게 『얘 손을 드러보렴』하는말을 조히쪽에서보이니까 잠시동안은 아모런반응이업드니 얼마잇다가 전신에힘을주어가지고 간신이손을 조금처드럿다고합니다

호리호리하게 몸맵시나는법

호리호리한 몸맵시를원하는녀성은 지금이나 옛날이나세상에그득차잇습니다 여기에『몸호리호리해지는법』한가지를 소개하겟습니다 이방법을주장하는사람은미국『쉬카고』의미용사『안로아넷』네리』녀사입니다 이방법은과학적연구에의하야 여러번보증되다십히한것이니까 확실한것은 두할것업습니다

×

몬저아침과점심은 적당한빠나나와 우유만잡숫시요 저녁은기름끼가적은고기(생선이조타)과푸성귀와과실약간이런케매일식사를하고 한편으로는『귀차저산보와 물놀상당히먹으면 효과는틀림업다합니다

화장하지안는화장법

건강미돌백『파ー센트』

분을 만히발르거나 부자연하게 연지를 두텁게발르거나 또『아이・샤도우』(눈가장자리에 검은칠)를 만드러 백주의거리를 횡행활보하는 녀성도만흔데이런화장법은 단연청산할때가 되엿습니다

×

건강미에 빗나는현대녀성에게잇서서는이런화장법은오히려수치로서 지금은『화장하지안는 화장』법이 [illegible]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방법과순서가잇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방법과 순서는 어떠케해야 할가요? 무엇보다도 기요한것은 피부를 깨끗이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성(脂肪性)이업는 녀성은크림을 발르시고 지방성의피부를 가지신분은『로ー숀』으로 얼골을씻고 그살결에 맛는향긔조흔 가루분을 조금만얼골에 발릅니다 그리고는 입술에는『베니』대신으로『포마ー드』나『기룹』을발르고 눈섭이나 속눈섭에는 액체인『브리안지ー느』를『부랏쉬』에발러가지고 정성을 들여털이 누운대로고윤게쎨어 발릅니다 그리고는 눈섭우에 파단행유(?)나『올리ー브』기름을한방울떠러트립니다 이러케하면 완전히『화장안는화장』이됩니다 밧구어 말슴드리면 자연미를 백퍼ー센트를 발휘할수잇는것입니다

화장을 하지안코는 못배기는화장팍(?)의 [illegible]들도 이러한 화장법은 때로는해보심이어떳습니까? 화장이라는것은 필경얼골빗이나쁜것을 숨기는것보다도 얼골을빗나게 하기때문인데 이러케하면명랑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골이됩니다 더구나 병후에시드른 얼골을입부러 감추려고 넘우보기실케분만 만히발르면 오히려흉하게됩니다 그러나 그러케하면도로혀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이상말슴드린화장법에의해서자연스러운화장을하십시오 이것이최근파리에서대류행이라합니다

개고리와쥐싸홈

어린이들읽을이야기

車斌均

못가에서사는 개고리가 『우리들은 물속에서도살수잇고 육지에서도살수잇는데 너이들은 물에들어서기만하면 빠저죽으니 암만그래도 우리가너이들보다훌륭하다』 하구 쥐를맛나 배를내밀고뽐내엿습니다 이소리를듯던쥐도지지안코 『뭐이엇재? 그래 너이들은우리들과갓치 땅속으로 깁흘맨들고 그속에들어가 살수잇느냐?』 하구, 개고리에게, 대들엇습니다. 『구멍속에서, 사는것이 무엇이 조흐냐?』 『물속에서, 사는것은, 뭣이조흐냐?』

개고리와쥐는, 금방 붓듣고싸울지경이되엿습니다. 그러나『잇다보자』『어디보자』이러케, 훗날원수갑흘것을, 속으로 결심하고, 그냥헤여저서 개고리는, 연못으로 쥐는, 구멍으로, 도라갓습니다.

하로는 개고리가, 못가에 놀너나갓다가, 마을근처에서 색기쥐한마리를 맛나게 되엿습니다 『요놈 잘맛낫다』 개고리는 속으로 하구 죽여버릴려고 능청스럽게 『내 맛잇는 물고기만이 잡어주께 우리 연못으로 놀녀가자』 하구 꾀엿습니다. 색기쥐는 물고기잡어준다는바람에 조와라하고 개고리를 따라못가에왓습니다. 못가에 다달은 개고리는색기쥐를 잔등에업으면서 『이애 못속에들어가 물고기잡어줄테니 꼼짝말어라!』 하구 텀벙 뛰여들엇습니다. 이때 그만 색기쥐는 물에 빠저허우적거리다가 가엽시도 죽고말엇습니다.

색기쥐를빠치여 죽인개고리는 밋살스럽게 그길노껑충껑충쥐를차저가 『너이아들놈이 우리연못가에와서 물작난하다가 빠저죽은줄도 몰으고잇느냐?』하구 코우숨하고난후 『우리개고리갓트면 빠저죽지안치!』하구 크다랏케 실눅거리고도라왓습니다.

이말을들은 쥐는 범서 개고리란놈이 꾀여다가 빠치여죽인줄로짐작하고성이하늘끗까지나서 『에ー라 이놈이 개고리색기를 다ー잡어죽이겟다』하고살살 연못가로기여갓습니다. 쥐는흠작난하고잇는개고리색기를 맛조흔과자를줄테니 가자구하여꾀여가지고집으로돌아와 구멍속으로업구들어갓습니다. 업지여들어온개고리색기는나갈수가업서서 그만구멍속에서빼빼말너죽고말엇습니다.

색기개고리가 일어진것을 안 개고리는 눈이벌커뒤집히여 씩은벌떼 쥐잇는곳까지 차저왓스나 그때에는벌서밀너부튼자가아들의송장이 잇슬뿐이엿습니다. 이것을본 개고리는, 기가맥혀 『에ー라 이놈의 쥐란놈을죽여 우리아들원수를 갑허야겟다』 하구 결심하고 한편를내엿습니다. 개고리는 자긔아들죽은것을 몹시원통하고, 쥐를치저공론하인사한후, 『여보쥐님! 오날까지 모다내가잘못이엿소, 내가잘낫다 네가잘낫다하구 싸운대차 소용이뭐요? 앞으로는 사이조케지냅시다』 하면서쥐의 손을덥석잡고, 눈물을 흘리엿습니다. 본래 매우한쥐는 그만 이소리에 감격하야, 뒤에 무서운 음모가잇는줄도 몰으고 『아! 그참 개고리님말슴이 올소』하고대답하니까 개고리는 놋치지안코 『자! 우리화의(和議)한것을축하하는 이미로 연못에가서 연꼿구경이나하면서 유쾌히놉시다』하구 쥐를재촉하야연못가로 대리고왓습니다 『쥐님은 헤엄칠줄몰으시니까 내발과쥐님발을노끈으로다답이매고들어갑시다』하구 못가에다달아개고리는 쥐와발을매후 못속으로뛰어 들엇습니다. 홀노뛰여든개고리는 연꼿핀곳으로는 가지안코 물깁흔 곳으로만 허엄처갓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꾸민한개고리의 계교엿습니다. 얼마동안이나 물속으로끌니원단이엿는지 나중에는 숨이막히고긔신이쪽저저서 죽을지경이되쥐는 『여보 개고리님 이건웬지로나 갑시다』하구애원하엿스나 개고리는 들은척도하지안코 이리저리끌고단니엿습니다.

쥐가기진하야 발버둥질할 힘조차업서서 그냥둥둥떠서끌니워단이게되엿슬때이엿습니다. 공중에서 날어가든 독수리한마리가이것을보구 『이거 웬떡이냐!』하면서 날아내려와 떠단니는쥐를물고올나갓습니다.

여ー러분! 개고리는 어떠케되엿슬까요? 아마 못에뛰여들기전 개고리가쥐와발을 노끈으로 매고들어간것을 여러분도잇지안엇슬것입니다. 개고리는 『독수리님, 제ー발좀놋습시오 니워주시우』하고애걸하엿스나 『흥 네, 고기맛이 더조흔것이다』하구 두발로단단히취여인후 독수리는 어듸론인지 날려가버리엿습니다.

니젓든 대우개선 발을 학대마라

발을다치면능률이주러 해로운구두

사람은 건강을 상햇슬때 건강한몸이 얼마나 귀한것인지 알수잇는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도그것이 상햇슬때 그발이귀한것인줄을 알게됩니다 보통때 사람은 발을넘우도 [illegible]시합니다 그러치만 한번발을상하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얼마나 자긔의 능률이저하되는것을 알수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우리는 발을잘대우할 필요가 잇는것입니다 더구나이즈음은 어렷대부터남자나여자나 구두를신음으로 구두와발과의 관게에대한위생학적 상식이잇서야 합니다

×

최근 자동차를제일만히탄다는 아메리카사람들은 하로평균 얼마나것고잇는가? 이제 그년령직업별로 일상활동경과를 조사한바에의하면

남학생이하로평균십오마일

녀학생이 십일마일

끌프조하하는『비지네스맨』이구마일

해상하는 부인네가 팔마일이라합니다

×

그런데 사람이평균 하로에것는거리를 게산해보면 약일마일 천팔보(步)로칠마일 팔분지칠이라합니다 이제이것을 일년간 계산하면약이천팔백칠십마일이라하니 일생동안 것는거릿이그얼마나 될것입니까?

×

무릇 사람은 열사람가운데 아홉사람까지가 발을알른일이 다소의 차는잇서도 대부분입니다 그발시병은 대개가 구두와깁흔관게가 잇다고 근대의학은 설명합니다. 발시병이 만흔것은 구두가 너무꼭드러 마저서 발이답답하다든지 또 넘우커서 헐렁헐렁한데서 일어나는것입니다.

근일 녀자들사히에 류행되는 『하이, 힐』(굽놉흔구두)은 실용적인것 보다도 장식용인데 이『하이, 힐』이 놉하감에따러 꼿꼿이 좁아지게되여 문명인은 자긔의발을 구두에 마치려는무리를 하고 잇습니다 이것이외식상으로는 조홀는지몰라도『발의건강』을위해서는 크게자미업는 일입니다.

×

발을 알지 안호려면 어떠케하여야 하나? 이예방법으로는 양말과 구두가 알마진것을 신는것이제일입니다 그리고『하이, 힐』을신게되여도 갑작히 뒤스굽치를 놉히지말고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하이・힐』을 만히 신으신분이 또 굽야즌 구두를 신으실때는 그것도 서서히 굽을 나추어야 합니다. 웨냐하면 『하이・힐』을 신든분이 『로우・힐』(굽나즌구두)을 신게되면 짤버진 근육이 늘어나게 되므로 아푸증이 생기는때문입니다.

기다리든남편은 텁석부리가되어

『알랄스카』에출동하야 일곱달만에도라온 미국의해군병들 고향을떠나든날 징을무릴때 면도칼안차것든지 수염이자랄대로 자라도라왓습니다 항구로 마중나간 그들의안해들은『아이구웃 저면을라보겟네』 염헤서 드른말은아니나 필시그랫슬것입니다

家庭醫學

가슴이두근두근

問 당년이십이세남자인데십일전부터 가슴이두근두근하며 자연히 근심이되며 가슴이압흐고 침울배트면 피가처음은석기엿스나 지금은나지안하오나 가슴은여전히두근거리고 때때로가슴이아풉니다 무슨병일까요 속히교하여주옵소서 (洪原一讀者)

答 가슴이두근거리고 압흐고 한것은모두가 신경성심장증(神經性心臟症)인것 갓습니다 될수록안정을 취하시고 무슨로동을하시거든 한면칠동안 휴양을하시며 잠을충분히자게하고 음식은자극성식품을 취하지말것입니다 혈담이조곰나와다하니 페에서 나오지안하얏는지 의심이되오니 한번내과 전문의사에게 진찰하여보십시요 근심이더생기며 더욱이두근거리게되는원인이될것입니다 복약은혈담의 원인여하에의하야일정치안할것이니 우선좌긔처방을복용하시요

臭剝가리움	三、〇
○草丁幾	二、〇
苦味丁幾	二、〇
單舍利別	八、〇
淨水	一〇〇、〇

右爲一日量三回 食間服用 要 三週日連用

(大學病院伊藤內科敎室朴秉來)

라디오

一月十七日(木曜)

◇午後六時 하ー모니카獨奏 金坡園

◇同六時二五分 課外講座 朝鮮의自然界(三) 徽文高普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話 感情의世界(一)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 京畿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執杖歌 [illegible] 金蓮玉

◇同八時四〇分(東) 바이올린과管絃樂 齋見四郞

◇同九時一〇分 滿洲出師表 張明花

一月十八日(金曜)

◇午後〇時五分 西道歌謠 一、楚漢歌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夢金浦打鈴 五、방아타령 六、樂山遊 七、潛江水打鈴 金玉仙 朴玉姬

◇同二時 趣味講座 錄音集事(一) 金岸曙

◇同三時三〇分(東) 春場所大相撲實況(第八日) 兩國國技館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 굴뚝대장 成俊德

◇同六時二五分 課外講座 朝鮮의自然界(四) 徽文高普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話 感情의世界(二) 中央佛專敎授 金斗憲

◇同八時 流行歌 作奏 OK오케ー스트라 趙嘉子

◇同八時三〇分 史譚 反正亂中의女丈夫 車靑吾

◇同九時 京城雜唱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一月十九日(土曜)

◇正午 時報 今日푸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獨唱 一、뻐꾹새…미크라인作曲 二、巡禮者…朴泰俊作曲 三、나의집…헤이스作曲 四、진달네…玄濟明作曲 五、신타루치아…伊太利民謠 六、小夜曲…토셀리作曲 七、歌劇보카치오中……舍페作曲『사랑』들에피인어엽븐꼿 金富任 伴奏 白南晳

◇二時 趣味講座 錄音集事(二) 金岸曙

◇同六時 (東)喇叭數樂과軍歌 一、行進曲 氣を付け 二、三、光明 四、水軍 五、行進曲靑年 陸軍戶山學校 軍樂隊指揮 岡田國一

◇同六時二〇分 兒童週刊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朝鮮의自然界(五) 徽文高普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演 朝鮮靑年의將來 曺秉相

◇同八時 吹奏樂 一、開門 二、平和 三、호산나 四、古橋 五、훌융한사랑 指揮 WE・노ー벨 救世軍育兒院樂隊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 皇城으로올러가는데 金昌龍 鼓手 韓成俊

◇同九時 歌詞 一、白鷗詞 二、春眠曲 文山紅 申花仙 大笒 金永根

우리차지

아잇 추어 추어 하면서 아구동이에 손찌르고 종종거름치다가, 어름판에 찍 미끄러젓다. 까불기 잘하는 창성이 녀석.

◇

에이 싸다 싸다. 고놈 곰탕니어 싸다.

글과그림 (장용한)

新春懸賞當選小說二等

車에서맛난女子 (五)

李曉根 作 安夕影 畫

웬천지가 광광히 어려웟튼어느날 밤이엿다 나는수입전에 사입(仕入)해드린물품을 장부에옴기고나서는지막해서야 백화점을나왓다 열시면그리는곳지도 안어건만희채 매서운날새탓이엿든지 길에는행인이드므럿다. 그날도나는 효자동(그당시나는 창의문밧게묵국하고잇섯다)행전차에 피곤한몸을 올려안치고잇섯다. 차안은 텡비이고 단지건너편에 노파한분이 남바귀속에서 눈을깜박어리고안젓슬뿐이엿다. 그날도를넘어서 간혹가른곳에서 차에오르는 녀자를 까닭업시은근히기다리고잇섯다 날마다하는일이지만 그날만은유난히도 그일홈모를녀자가 한시밧비보고십헛섯다. 그것이 실업슨 홀아비의조고마위안거리로는 넉넉하얏다. 그러든중 과여예기에를넘업시 붉은바탕에힌글자로『체신국전화교환실』이라고 쓴기둥이 감감한 창밧게와서섯슬때 그녀자의야윈얼골과 간얄핀몸이 차위로나타낫다.

까닭업시 기다리다가도 그녀자의얼골을보고만나면 나로서도알수업시 마음이흡족한것가튼만족을느꼇다. 그녀자는 두어가닭흘러나려온 머리카락을가느다란손가락으로 글거올리고는 핸드빽에서 조고만책하나를끄내서 읽기를시작하는것이엿다. 그리다가도 책에서 눈을떼여 캄캄한창박글내다보기도 햇다. 나는 그의어엽부다느니보다가련하고 깨끗함을 새삼스럽게발견하고 은근히호감을그에게느꼇다. 차의동요에몸을낫기고 안젓는그의꺼질듯한자태는맛치못가흘외로히핀수선화가바람에하늘거리는것갓햇다. 그자태를흘금흘금 그의시선을피해가며 도처질해보면볼수록 괴로움을받치 그가아릿다워든것이다. 바로그때엿다. 우연히참으로우연히 신이빗그러매준것가티 나와그의시선이마조첫슬때 그는의외에도 나에게가벼운미소를보냇다. 그미소는 이상한힘으로나의얼골을뜨거웁게하야 나는얼른외면을해버렷다. 『그러케도 얌전하게보이는 그가 그러케대담한행동을 할수가잇슬가? 아니다그럴리가잇나, 무슨생각을하고 홀노미소를띄엿슬때에, 나의시선이 부질업시가서다은게지 설마나에게대한 미소는아니겟지』 나는 허잘것업는 일을가지고 이러케곰곰히 생각해보앗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대한 미소이기를보든히 바랏든것이다. 효자동종점에서 차를내린나는 창의문으로가는 캄캄한길을거럿다 그녀자도차를내리고 어느새 에두어간 압흘것고잇섯다 달이업는금음밤이라 지척을분별하기 가극난이엿스나 여튼 어둠은 녀자도다리에 전혀힘을주고 것다서 나여시것기가힘이드럿다 그가도 발이밋그러지는바람에 몸의균형을일코 비틀거리곤햇다 그리다가 눈감작할새도업시 그녀자는두다리를 하늘노 뻣개를 치며 『에그머니』소리와함께 나가장바닷다. 그는잠간 허위덕거리드니 몸을일지못하고 안진채동갯다 퍽 되게 고른모양이엿다 나는그대로지나가기에도 너무민망하고가여워서 『길이퍽밋그러워서 것기에아조 힘이드는데요』 하고 위로겸이러케 중얼댓드니 그녀자는 붓그러움에 얼골이발개지며 이러나랴고 애를썻다.

나는 서름고의팔숙지를 꺼이르켜주엇다 그것은너무당돌한행동인지는 모르겟스나 극히자연스러운 순정에서나온거동에서더지남이업섯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녀자는궁둥이를주먹으로어루만지며 이러케인사를햇다 『과히 닷치시지는안으셧나요?』 어느듯그와나와는 억개를나란히하고것고잇섯다. 『어듸를이러케늣게다니서요』 그는 조곰도 주저함도업시 나에게무럿다 『밥버리하는일이 이맘때나 되여야끗치난답니다』 『저역시그래요 똑귀찬아죽겟서요』 『실례이지만, 아마 교환수로계시지요?』 점점거북한기분이 것치는것을 기회로나는무럿다. 그러니까 그녀자는좀부끄러운듯이몸을틀드니 『네ー』하고대답햇다. 그말에서나는나의고향인평안도사토리가끼인것을늣기고 나는반가웟다. 『고향이어듸서요』 『선천예요』 『네ー 나는 순안입니다 그러니까, 퍽가갑구면요』 그녀자는 어듸까지순진그것이엿다 나는 어느듯 [illegible] 서 도상(途上)에서 [illegible] 멀니바라보이는 곳까지 왓슬때 그녀자는 무럿다

當選戲曲

"출행낭에 사는 사람들" (第二幕)

⑦ 沈載淳

起鎬 그저 이대로 잇다가 혹시 조혼수나 타서 마님께 잘 엿주워 너를 안으로 불러드릴때를 기다리란 말이다。그저 나를 미더라 응!

금순 그럼、제명색(存在)은 될까요? 허수애비에요? 더구나새앗씨 엽헤서 엇더케맘(良心)에 찔려 사라나가겟습니까? 작우간 서방님이 저를생각해주시는건 잘 알겟습니다。그러니까 저도 잘생각해두지요

起鎬 그래 잘생각해 두어라 퍽 느젓스니 고만 들어가 자거라。나도 들어갈테니。

起鎬 大門안으로 들어간다。起鎬가 사라지자 금순이 늣겨운다。이럴적에 금순母 슬히

금순母 (가만히)어터케 됏니? 응?

금순 (눈물을씻스며 한참동안間만치어보고 잇다)

금순母 에그 이년아 갑갑허다!

금순 (천천히)인제야 나는 내 할일을 깨다른듯 십습니다。

금순母 나도 밧에서 네가서방님허고 하는말을 대강들엇다 할수잇느냐? 잘사는사람은 죄다 자기조흘 도리만 생각허는걸 잇더커니。그러니 너도 아주 단념해。우리는 미천한 인간인데——

금순 ……

금순母 그만 방으로 들어가자

금순母 딸을다리고 大門안으로 들어간다

間

행길에 술주정꾼 코노래를 부르고 지내간다。수만이 행길에서 大門으로 들어오다가 금순내 들장을 드려다본다。

수만 (의아한드시 한참동안 들여다보고 섯다가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에게。웬일일까。봇짐을 싸니。흥 도망을허려는가 보다。이밤중에

—(幕)—

第二場

第一場과 가튼 舞臺。그러나 一、二時間후。새벽하늘이 차츰 밝어올때 행길에는 古木밋헤서 거적을펴고 자는 행낭사람뿐이요 대단 고요하다 한동안 守萬이 厚奉이를 대리고 大門에서 나온다。

守萬 내 말이 그진말이거든 이리와서 보렴우나 네 눈깔루

厚奉 (금순네방쪽에서 소리가 들려나온다)

厚奉 (금순네방 들창을 살그머니 드려다보고 놀내며) 금순 어머니! 이새벽에 웬일이십니까?

금순母 (방안에서소리만들린다) 홍이로구나! 마침 잘왓다

守萬 흥 그것봐! 내말이 중말이지

厚奉이는 守萬이의 하는말에는 귀에당으려 하지안코 大門안으로 뛰여드러간다 守萬이도 따러드러간다。

人夫A B 屍體를 들것을가지고 행길에서 나오더니 大門으로들어가며 이야기 한다

人夫A 쇠돌하라버지가 그럭케 쉽게 돌아갈줄은 몰랏서

人夫B 공동묘지가 아니라바로 화장터로 간다지?

人夫A 그러태。화장을 헌대。

人夫A、B、大門안으로들어간다 이윽고 금순모녀 압서고、그뒤에 厚奉이그리고 수만이의 [illegible]순이와 大門으로나온다。

厚奉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니까? 떠나신?갑갑허니 얼는 좀 애기 [illegible]두십시요。

금순母 우리모녀는 이대를 떠나가 버리기로햇다

厚奉 무엇때문에요?

금순母 그런게아니라 어제 저녁에 금순이가 서방님을 맛나서 이애기를다듯고는 그만 아주 결심을 햇단다。서방님 말슴이 자기는어쩔수업서혼인은허나、애더러는 언제까지든지 떠나지 말구 이행낭에서 살아달나드란다。

守萬 흥 그건 바로 욕심쟁이로구나!

厚奉 그래 금순이는 엇더케 마음을 작정햇단말이애요?

금순母 서방님이 혼인헌후에도 이 애가 여기 잇다구하면 얼마나 새아씨가 불행하겟니? 새아씨일도 그러커니와 금순인들 처지가 딱허고 불행하지? 그야말루 첩도 아니고 비종도아니고 그게무어냐? 비[illegible] 내가 아여 씻을으로 말리와 오날까지 사려는왓지만 사람의 도리에 어그러지는노릇을 어떠케 할수가잇니? 그래서 우리는 몸을피하기로햇단다。그러면 서방님도 차차 단념하고 새아씨와 정분붓케 살것이라구 이애가 말해서 참 내자식이라도 처음으로 마음이 고은줄을 아럿다。

厚奉 금순이가 참잘생각햇습니다。애당초에 그럴노릇이애요 그럼 저는요 어떠케 햇스면 조흘가요?

금순母 간밤에 이애더러 내가네 말을모러봣단다。그러치만 금순이는 언제까지라도그저 서방님을위해서 일생을 늙는다구 고집을핀단다。서방님에게 한번 밧친맘이라구해서—

守萬 에게! 그럼 바루 생과부신세가되겟구료?

금순母 그러기에말이야 수만아! 대대팔자둥이라구 내가이애 세살적에 과부가되드니이애마저 이꼴이로구나

文藝

標準語制定에對하야

어떠케實際上効用을保障할까

(四) 洪起文

그다음으로어떤機關또는어떤사람을通하야 標準語가制定되나를 이약이해보자。

첫재로各國의政府가 直接그制定을 計畫하거나 적어도그制定을後援한다。國民思想乃至國語思想으로부터標準語의制定을要求케되는以上 그것은當然한歸結이다。또本來 全國의사람으로부터 日常生活에使用하고잇는그言語를노코 標準語를制定한다는것은 그다지容易한事業이아니라 國家的勢力을빌지안코서는 좀처럼着手키가어렵다。왜先進諸國에서 만히標準語를制定하야노하不拘하고 後進諸國에서는 아즉것保留하고잇느냐하면 그것은國家的勢力의未備立으로서 重大한理由를이루는데 틀림이업다。더구나한民族語라고 반듯이한國家語가아니다。한國家語가못되는 그말은勿論標準語制定에對하야도 國家的支持를밧기가 極히困難할것이다。그러나 그러한말을가지고도

標準 語를 세우고자 努力하는사람이 아조 업스란法이야 잇는가? 그標準語의 制定이甚히 困難한것만은 事實이겟지만은 그러타고그들의努力을 全然無視할수야잇는가?

×

둘째로 그言語를研究하는사람들은 勿論 그와關聯이잇는各部門의사람으로부터 相當한時日을 虛費하야 深甚한調査研究를行하여야한다。標準語의制定이 그래도一定한實際上効用을 目標로하는마큼 그만한基礎를 要하는것은 勿論妥當한行動이다。設使國家的絶對의支持가잇다고하더라도 멧멧사람의 獨斷的案을가지고서 곳標準語라고 내걸어서는 何等의効用을거두지못하고만다。政治勢力의强行命令이 어느程度까지 言語에對하야

影響 을끼치는것은事實이로되 그影響만흔過重評價하게되여서는아니되다。더구나國家의支持를 作隨치안는곳이야 더말할것이업지안한가? 될수잇는限까지 愼重한調査研究라도行하야 가장實際上効用을거두도록 努力하여야할것이아닌가? 멧멧사람이어떠케語彙를모아가고 가자이멧멧사람을請하야다가 不過四五日內버락가리標準語를定한다는것은 아모리好意로解釋하더라도 一種의輕擧가아니라고볼수업는일이다。勿論거긔에도마흔條件을具備하여야할것으로 不得已한일이라고辯護할는지는 모르되 그辯護로서 決코그制定된標準語의効用을 增大시키라는 적지안한疑問이다。

×

또그다음으로 어떤

方法 을가저 標準語의効用을 들어내나를 이약이해보자。

첫재로 各國政府가 거의强制的으로그宣傳과 普及을도모하게된다면 國民教育을爲始하야 官公文書에對하야도 오즉그標準語의使用을許하게되며 一般出版物을爲始하야 一切集會에서도 오즉그標準語의使用을獎勵하게될것이다。그勿論가장効果잇는方法임에틀림이업스나 一般出版物과 一切集會에까지 强制力을 發動시키기는 심히어렵고 또더구나 個人 個人의 會話에까지는 아모런힘도 미칠道理가업다。그래서 國家的으로 標準語를 制定한나라에서도 그宣傳과普及에對하야는 다시 머리를알코잇다。우리 言語 研究家들도 그만한現象을 모르지 안하리라고 생각한다。

×

둘째 社會의各方面 各個人이 다가각 標準語에對하야 忠實한 使徒가 되야준다면 國家의强制力이미치지 못하는곳을 다시補充하야 標準語의効用을 十二分까지 保障할수 잇슬것이다。그勿論 조혼案임에 틀림이업나 各個人의自覺을 어느때까지 또는 어느程度까지 밋고잇서야 올흘찌아지못할일이다。아니先進諸國의例를 보더라도各方言은儼然히 存在해잇슬뿐이아니라 도리어 標準語의 攪亂을 이리키고잇다。우리의 言語研究家들도 그만한 現象을 역시모르지안하리라고생각한다。

×

지금言語研究家들은 어떠케標準語의

効用 을 들어내고자하는가 이두가지以外에 그무슨妙計秘策이잇는가? 그들은 첫재總督府에向하야 그採用을請願하여야할것이요 그러치안하면 一般民衆에對하야 그自發的促進乃至待望하고잇서야할것이다 그들의汲汲한弄措와忽忽한 決定에比하야그効用은 넘어나遲緩할것이아닐까고推測된다。

날개업는 飛行機 ＝ 航空界의 發展이 [illegible]위가는때 [illegible]과가튼 [illegible]

『[illegible]―든자이로』가 [illegible]의 上空을 나르는 光景이다

窮巷賣文記【其他】

(1) 朴泰遠

朝鮮文壇의 不振이란、흔히듯는말이요、또그것은 事實임에틀림업다。

그러나 사람들이、그것을 오로지 朝鮮作家의無能、或은 怠慢에말미암은것가치 생각하려들때、그것은얼핏 그런듯하면서도 實狀은 크게 올치 안타。

그야 朝鮮作家의 創作活動이 至極히 活潑하지 못한것임에는 틀림업다。그러나 오족 그 한개의事實을 가저 곳 그대로朝鮮作家를 無能하다 또는 怠慢하다 그러케쉽사리 말해버릴수는 업슬것이다。

○……○

爲先、우리는 朝鮮作家의 生活이라는것을 생각하여 보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케 말하엿슬뿐으로 若干이라도 文壇事情에 適하다면 그는 반드시쓰되쓴 웃음을 웃고 그리고가장 민망하게

『朝鮮作家의 生活? 朝鮮作家에게도 제법 生活이라는것이 잇나? 흥!』

이러케 嘲笑할것이다。

果然 딱하게도 朝鮮作家는生活을 가지고 잇지 못하다。

○……○

假令—

한 사람의 一個月間의 生活費를 最小限度 ××圓이라 하자。

그야 우리는 現實에서 그以下의 假令 ××圓으로 或은 ×圓으로 最惡의 境遇에는×、×圓으로 僅僅히 露命을 이어가는 許多한 例를보고 잇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가르처 生活이라 이를수 업다。……

그러면 朝鮮作家는? 그의生活費는?

그는、外國作家모양으로、假令 讀書를할수업드라도 조타。旅行을할수업드라도조타。社交를못하여도또는戀愛를못하여도모다조타고 하여두자。그러나그도亦是사람인 以上에는 어떠케生命만이라도維持하며 가야할것임으로그의一個月間의 生活費는 모든사람의例에 依하야 最小限度이 ×圓을 計上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러나 朝鮮作家는 그의最小限度의 生活費를어데서 어떠케 求하나?

(이 境遇에 우리는제自身作家生活을 하여가기에 足한資力을가젓다거나 裕福한父兄戚은 안해를가진作家를除外하기로한다。그들은 散文으로 보드라도 겨우二三名에 不過할것이다)

朝鮮作家에게는 作家인까닭에 多幸히 글쓰는 才操가 잇섯고 또 作家인까닭에 不幸히 그밧게달은 才操가 업섯다。그리고 또 多幸히 或은 不幸히 이苟且한 朝鮮에서도 實로 그苟且함에도 不拘하고 그의글을『돈을 내여』사주엇슴으로 그는어떠케 글을 써서 生活하여갈方[illegible]를 세우지 안으면 안되이다。

○—○

그러나 大體 어떠한 方法을 擇할中에 가장 愚劣한이는 뭉은 말할지도 몰은다。

「××圓의 生活費를 딱하에서는 朝鮮作家는 오직 ××圓어치 原稿를 쓰면 그만일것이다」

라고。

허히 至當한 말슴이다。그리고 그것으로 朝鮮作家의 生活問題는 쉽사리 解決되는듯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 機會에×××圓어치의 原稿란 大體 얼마나한 分量의것인가나 알어 보기로하자。

○—○

朝鮮에 잇서서 어른바 原稿料라는것은 『二十四字 十行』原稿紙 一枚에 對하야 ××이나 ×××、그밧게 더 안되는것이 通例이다。

(하하 大體 언제부터 내가 이러케 窮狀을 떨게 되엿는지 제自身이알수업는 노릇이요터구나 안면도 업는 讀者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것이 決코 本意가 아니나……)

까닭에 다달이 ××圓을 求하기 爲하여서 朝鮮作家는 적어도다달이 「一百四五十枚의 原稿를 쓰지안호면 안된다。

爐邊隨想(三)

祖國愛와 戀愛

咸大勳

愛란 한개의 觀念形態로써 그것이 對象과 表現如何에 依하서 或은 祖國에對한 愛、父母에對한愛로그區劃線을 거를수잇는것이다。그러므로

愛 란것은 그것이 如何한 것임에 不拘하고 優雅하고 高潔하고 情熱的이고 犧牲的이 안일수업는것이다

우리는 生命을 犧牲하면서 그사랑이란것에 對하야 祭物이 되는일이 만흠을 본다。

그러므로 愛情은 그것이 人間最高의 感情이 안일수업는것이다。

×

어제人밤 나는 某劇場에서『相思의魂』이란 映畵를 봣다。

그映畵는 그리 名作이라고는 할수업다 하드래도 相當한 作品이라할수잇섯다。거긔는 異國民사히에 얼크러진 사랑때문에 祖國愛와 戀愛의分岐路上에서 두 男女의 애처러운 그림자가 안타가히도 사람의 가슴을울리는 것이엇다。

獨逸青年인『유―고』와 米國女性인『메리―』와는 서로사랑하는 사히가되여『유고―』는 米國에 入籍한뒤 메리―와結婚까지하여가지고 幸福된날을 보내게 되엿섯다。그러나 幸福된날은 그리길지 못하엿다 사랑하는 아들이죽고 뒤미처

歐 洲戰亂이 일어 나게되자 유―고는 米國에歸化까지하엿건만 獨逸人이라하야 그는 大學에서 쪼기어나고 또 自己집에서 기르든獨逸개도 亞米利加애들에게 撲殺되자 獨逸의 血統을 가진그는 안해를속히고 本國으로 도라와 祖國愛에 불타는 精神으로 戰亂의 渦中으로 뛰여나가게 되다 그리하여 그는 米軍의 陣地에 드러가 『探偵』을 하게되다、그러다가 陣中에서 米軍에 加擔해 出征한 옛날의 그의愛人『메리―』를 만난다 『메리―』는 거짓과 눈물가운데 그를 반겨맛는다 그러나 그는 初面의 사람이나 만난드시 冷待한다 그때 米國의 將校로잇는 『메리―』의 옵빠가 이『스파이』가 드러온것을 알고 이편으로올때 『메리―』는 自己옵빠에게 自己가 極度로 疲勞하엿다하야 休憩所로 데려다달라한다 이리하야

獨 逸探偵은 그危機를 버서난다

그날밤! 그靑年은 『메리―』잇는곳을 차저왓다 그러나 『메리―』는 그靑年을 위왓는냐? 고 怨望한다 그러나 옛날에사랑하든 그들은 다시금 옛사랑의 보금자리속에 깁퍼가는밤을 새이게된다……

여긔서 『메리―』의 苦悶은 始作된다 男便인 이靑年을 救할가? 祖國을 爲하야 이靑年을 죽게할가? 萬一에 自己가 이靑年을 救해本國으로 돌려보내면 男便의生命은 救援될것이지만 自己의祖國인 米國은 餘地업시 破滅된다 그러나 이靑年을 죽게하기는 넘우도 愛情이 容恕치를 안는다

『메리―』는 祖國愛에 불타면서도 또한 戀情을 犧牲할수는 업섯다 여긔에 國際結婚의 悲劇이 잇는것은 勿論이어니와 이리하야 『메리―』는 할수업시

情 死로서 이것을 解決하게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수업는 이 [illegible]國愛와 男便에對한 愛情에 分岐路上에서 어대로 갈것인가? 는 크게 注目할일이다

×

祖國愛는 어느民族을 勿論하고 누구게나 업슬수업는 犧牲的 感情이다 그것은 昨今에問題된 이『잘』地方 人民投票에 依해서도 그것을 알수가 잇는것이다。아―모리 히틀러―의獨裁政이 그들에게 憎惡의 感情을 가게하엿다하드라도 『잘』地方人民의 多大數가 獨逸의血統을 가진지라 佛의壓力도 버리고 聯盟의 治下도 버리고獨逸國民이 되려한것이다。

"正月의 描寫"

＝렌토겐室에서본正月

③ 夕影

生命이貧困함은 重病을 아라보아야 하는모양이다 厭世를하는사람도 痼疾을치러보면 그生命이라는것이 얼마나 高價한것인지를 알수잇슬것이다 九死一生 의 그快感도 일흘生命을 다시붓잡은까닭일것이다 自殺하는 사람도 죽어가는 刹那자긔를몰을때에 그는 자긔의 輕擧를 後悔할런지도모른다 그것은自殺未遂로 죽지도못하고 다시산사람이 生活慾이 더强해지는것을 보아도 알것갓다 더구나 病院에드러누은 여러 患者들이 生死의岐路에서 안탁가웁게도 제生命을 붓둥켜안고 놋치안호랴고 발동거리는것을보아도알것갓다

더큰것이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업시 다만 자긔의몸이死態도 絶對하지안키를바랄뿐일것이다 病든者의 마음은언제나갓겟지만 새해의새빗을 떠나지안호랴는 그괴로운마음、그命令도 그것은病者가아니고는 모를일인것갓다

▲

手術臺에드러누어서 칼날이 自己의 살을 쪽쪽가르고배히고 끈코하는 소리가 麻醉가된자긔의 흐릿한 聽覺에 부딧칠때 昏夢한 中에도 그恐怖가 어떠할가 나는××病院廊下를 거를때 구루마에실려 白衣의看護婦에게끌리며 『렌토겐』室暗黑으로사라지는 生死의關頭를 밧게될 그들을보고 그들의 心靈의[illegible]을 듯는것가텃다 生命을 [illegible] 사람이 [illegible]하는

경련을이르키게하엿다 누구나健康하다는것은 幸福된時間을가진사람을말하는것갓다 그러나 健康한 사람에게도 그病院의雰圍氣에 부딧치면 自己自身도 어디인지病든곳이잇는듯이 不安을 늣기게되는때가잇다 그러치만땅은 自己의健全한몸이 얼마나자랑할만한것인지……喜悅이여

醫師들의冷情한 顔色이 실업시나에게도 외롬에가벼운기에잇슬때도잇다 그러나人類는임이病든지오래다 이病人들은 그누가 診斷을하고 그누가手術을하단말인가

▲

正月의病人들에게 그들의生命을위하야 祝禱해야만되겟다 그리고 사람들을모도다『렌토겐』室에 드러보내여 그病든곳을 檢診햇스면조켓다 더구나이땅의사람들을……

「春의首途」와 强한興奮劑 ＝ 靑春은 獨逸「케―니스베르히」商業學校前에 세운 靑春의 血潮를뛰게하는 彫像「靑春의 首途」다

映畫常識

『토―키―』가될때까지

(續) 辛相[illegible]

비타―會社의 울소포닉、코럼비아會社의 피바―드닉、부란스위닉會社의빠나드록、포리돌會社의포리파、이方法의 出現에依하야 各蓄音機會社는 復活되여비타―會社에 잇서서는 一九二六年의總賣上額은 四千六百萬弗 五年一九二七年에는 四千九百萬弗 다시一九二八年에는 五千二百萬弗로逐年增加하여왓섯다

蓄音機의 原音再生이 조와진 結果이러난것이『디스크』式토―키―로서 먼저이것에 着手한것이 『웨스탄電氣會社』이다 이『디스크』式 토―키―를 와―너 뿌러더―스 映畵會社가 마러서 直時로 『부룩크린』에 『싸운드、스테―지』를 建設하야 『바이타―폰』이라 命名하야 『토―키―』의製作에 着手하야 그해八月에는 第一回作品『돈·판』을 發表하얏고 이어서여러개의作品을 世上에내여노핫다 그러나 이가든作品은 다만作奏나擬音을 너헛슬뿐으로 實토―키―라―폰의

眞價 를發揮한것은 一九二七年에發表한『알·죤슨』主演의『쟈스·씽거』란映畵이엿다

一九二八年에는 다시멧가지의 『디스크』式의토―키―가 出現하얏다 即『보―』『밀림』는『메듀케―숀』會社에『비타』會社는『콜럼비아』會社와 提携하야『웨스탄』『R·C·A』『시네폰』『콜럼타폰』『푸리스틀폰』『베어센트』『포노디스크』等의것이 一九二八年부터 市場에 나오게되엿다 여긔서 從來의 필림式寫眞의 토―키―에도 디스크式裝置를 兼備한傾向이되어 各토―키―機製作會社는 기의全部兩用機를製作하야 裝置하게되엿다 그러나 『컷트』나 檢閱上不便이 만흔故로 『디스크』式은

漸次 그자최를 감추게되야 겨우小型映畵(十三미리及九미리半)의 토―키―用으로서 남어잇슬따름이다 그러나 이것도 結局은 필림式으로 토―키―가되지나아니할가생각된다

獨逸 맛츰내로 歐洲에서 第一토―키―를 말하면 토―키―가 發達된것은 獨逸이다 獨逸人『오스카―·메스테』氏가映畵와 蓄音機를 結合식힌것은지금부터 二十數年前일로 이것은米國에서열린『센트루이스』世界博覽會에 出品되엿섯다 其他여러사람의 發明家로서 여러가지 裝置가 考案되엿섯스나 그中에第一有名한것은『한스·포―트』『요셉모―젤』『독흘엔겔』氏의 三名이다 이여서 『큐히엔마이스타』

發明 한필림式의 『트리엘곤』方式이發表되엿고 『뿌로드』等의 方式이發表되엿고 디오『빼―다―센』『쩰센』도完成되게되엿다 이것等은 全部필림式토―키―이다 그런데 一九二八年九月이것等이 合倂하야『토―비스』會社가創立되야 各시스템을 統一하고 綜合的裝置를 完成하야 營業에 着手하엿든것이다 그런데 『아―에―게―』及『지―멘스』等의 電氣會社를 中心으로한 『크랑필림』會社가 이와對立하야 一時는特許問題까지 이러낫스나 一九一五年二月이二大勢力이協定하야『크랑』會社는 再生裝置의 製作을 擔當하고 『토―비스』會社는 專然映畵의

製作 에만 힘을쓰게되야 二者間에 圓滿히 解決하게되엿다 元來 獨逸의토―키―는『사일렌트』映畵를 補充하는 發達過程으로써 米國과가티 華麗한 製作欲이 업시 토―키―機械의 製作도 大部分價한것으로 再生裝置도 安價한『아다치멘트』를 無聲映寫機에 裝置하야『사이렌트』와『토―키』

와 [illegible]을 할수잇섯든것이엇다。이토―비스式은 歐洲[illegible]及日本等에서도 [illegible]히使用되고잇다特히英國 『부리티쉬·인스트론』會社와의 提携가 成立되여其後『포―트폰』會社가『토―비스』獨逸會社와의 提携가成立되여其를[illegible]게되엇다、오히려[illegible]에서

特記 할것은 『루―멘』氏以來 專務『필림』式의研究가行하야 『디스크』式으로서는 그의有名한것이 製作되지아니하얏다 다마☆포리도―르會社가 試驗的으로 토―키―用디스크의 製作을 取扱한데 不過한模樣이다

英國에 잇서서는 一九二四年 『씨 에프 엘빈』氏가 『포노필림』의 權利를 사서 그製作을 計畫한것이 토―키―企業의 開始로 一九二八年八月에는 새로 英國토―킹픽취―』會社가생기어 氏의提案을 繼續하게되얏다 이여서『브리스위[illegible]』會社를中心으로하야 『뿌리틱쉬、포―트』會社가 생기며 獨逸로부터『그노스필림』(디스크式)의 權利를 사서 製作을

始作 하얏스며 其他의 會社도 米國이나 獨逸에서 그裝置를 購入하는 狀態로 英國토―키―界의 發明研究는 그리대단한것이 업섯다

그러나最近에이르러서 『푸란스』『트마신』『월리암』『지―베스』等의 裝置가發明되야 特히後者의 錄音及再生假는 二十年의긴 研究의結果 生한것으로 모다『디스크』式의것이다 (終)

담배의갑을 내여버리지말라

【하바나發聯合通信】革命總罷業에 언제나떠들석하는 큐―바에서는 最近에담배갑을 絶對로街路에 버리지말라고 法令이發布되엿다 萬若담배의빈갑을 버리다가 警官에게들키기만하면 當場에 檢束되며 嚴重한取調를받지안코는釋放되지안는다고한다 理由는 最近頻頻한 큐―바各地에서 이러나는爆彈事件이 煙草의빈갑中에 爆彈을裝置한까닭이라한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詳細는當校에直接問議하시오)

法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約六十名
▲試驗科目 國語(解釋、書取、作文) 英語(英文和譯) 數學(代數) 歷史(國史)
▲試驗期日 三月十六日 十七日
▲試驗場所 京城府光化門通同校
▲入學願書受付期日 二月末日

京城醫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約八十名
▲試驗科目 國語及漢文 英語 數學(代數、平面幾何) 物理及化學
▲試驗期日 三月十六日부터 四日間毎日午前九時開始
▲試驗場所 京城府蓮建洞同校
▲入學願書受付期日 二月末日

京城高等工業學校

▲募集人員 約六十七名
紡織科 一一名
應用化學科 一三名
土木學科 一三名
建築學科 一三名
鑛山學科 一二名
▲試驗科目 國語(講讀、作文) 數學(代數、幾何、三角) 物理
▲試驗期日 三月十六日、十七日 十八日毎日午前九時開始
▲入學願書受付期日 一月十五日부터 二月末日限

水原高等農林學校

▲募集人員 約六十五名 農學科 約四十名 林學科 約二十五名 內無試驗檢定 農學科 八名以內 林學科五名以內
▲試驗科目 國語、英語(英文和譯) 數學(代數、平面、幾何) 理科(動物、植物)
▲試驗期日 三月[illegible]
▲入學[illegible] 定에依한者) 一月末日限
▲試驗場所 京畿道水原郡日新面西屯里同校

京城高等商業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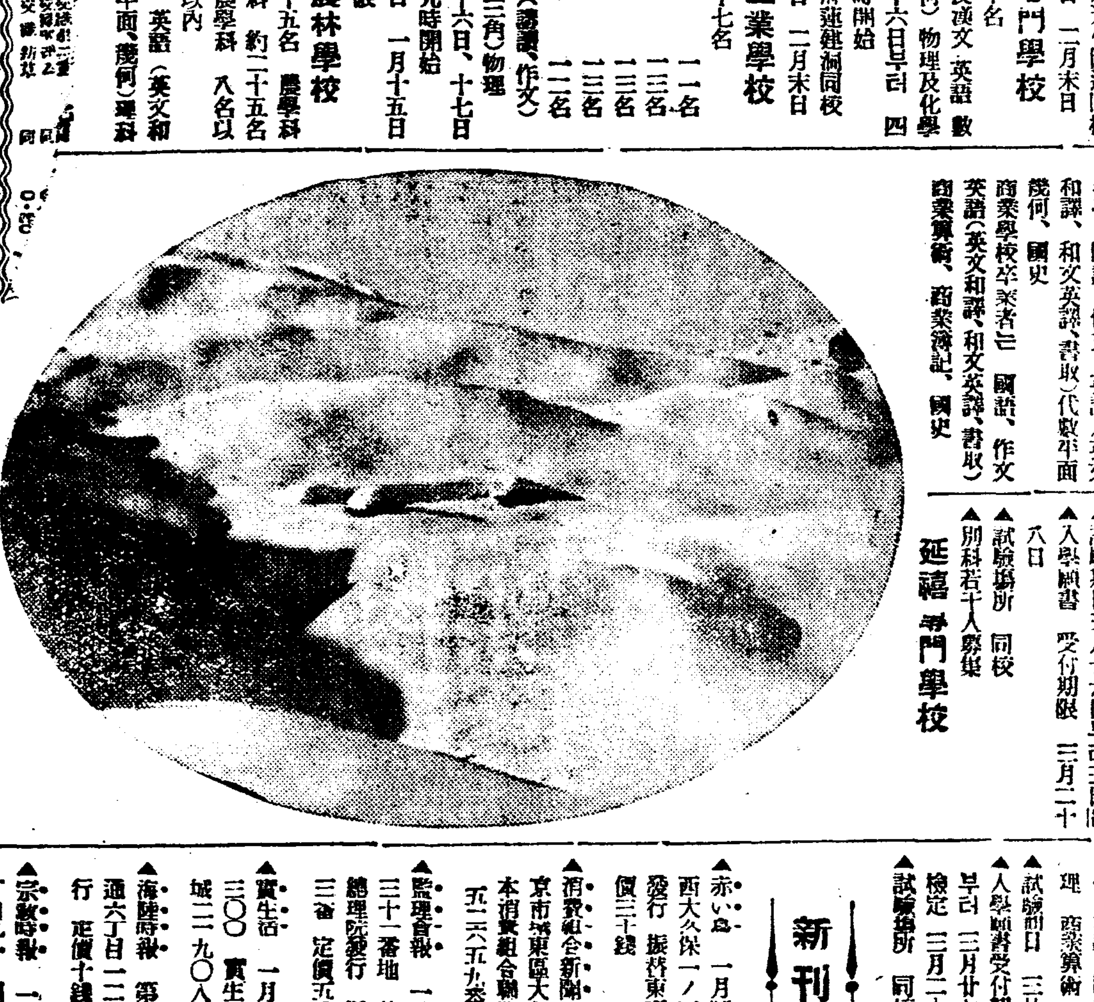
▲募集人員 約八十五名
▲試驗科目 中學校 高等普通學校卒業者는 國語、作文、英語(英文和譯、和文英譯、書取)代數平面幾何、國史 商業學校卒業者는 國語、作文 英語(英文和譯、和文英譯、書取) 商業算術、商業簿記、國史
▲試驗期日 三月十六日十七日 十八日午前九時開始
▲入學願書受付期日 試驗檢定者 一月十五日부터二月末日限 無試驗檢定에依한者는 一月十五日부터 二月十五日까지
▲試驗場所 京城崇二洞同校

普成專門學校

▲募集人員 法科百名 商科百名
▲試驗科目 國語、英語、數學(代數幾何) 口頭試驗、身體檢査
▲試驗期日 三月廿九日부터三日間
▲入學願書 受付期限 三月二十六日
▲試驗場所 同校
▲別科若干人募集

延禧專門學校

▲募集人員 商科 五〇名 文科 五〇名 數物科 三〇名
▲試驗科目
▽文科 英語作文(和文英記、英文和譯) 國語及漢文 朝鮮語 歷史(西洋史及日本史)
▽商科 英語 國語及漢文 世界地理 數學(代數 平面幾何)
▽數物科 英語 國語及漢文 數學(代數 幾何 三角) 物理
商業學校卒業者도 商科受驗者는 英語 國語及漢文 商業地理 商業算術
▲試驗期日 三月廿九日 三十日
▲入學願書受付期限 二月二十日부터 三月廿七日까지(無試驗檢定 三月二十日)
▲試驗場所 同校



新刊紹介

▲赤い鳥 一月號 東京市淀橋區西大久保一ノ四六一 赤い鳥社發行 振替東京二九四一六番 定價三十錢
▲消費組合新聞 第七十六號 東京市城東區大島町一ノ三一 日本消費組合聯盟發行 振替東京五一三六五九番 定價一部三錢
▲監理會報 一月號 京城府冷洞三十一番地 基督教朝鮮監理會總理院發行 振替京城一八三七番 定價五錢
▲實生活 一月號 京城府樂園洞三〇〇 實生活社發行 振替京城二一九〇八番 定價十錢
▲海陸時報 第四號 元山府海岸通六丁目二二六 海陸時報社發行 定價十錢
▲宗教時報 一月號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宗教部發行

山間六個郡에만 飢餓民이 二十餘萬

當局의 根本的救濟도 急務나 伐木禁止緩和를 要望

【寧邊】 [illegible] 淸川江上流에 [illegible] 지방으로 개천 녕원(价川 德川 寧遠) 영변 운산 희천(寧邊 雲山 熙川) 륙개군에서는 농동민이 [illegible] 이십여만명은 극도의 [illegible] 하천채금(河川採金) [illegible] 무리자금(無利資金)을 [illegible] 군별의 수자와 군별의 수는 아래와 갓다 한다

- 寧遠郡에 四萬餘人
- 价川郡에 二萬餘人
- 德川郡에 三萬餘人
- 寧邊郡에 三萬餘人
- 雲山郡에 二萬餘人
- 熙川郡에 六萬餘人

안해일코 搜査願

【新浦】 함남신포항구문원동(文元洞) 방에세로잇는 리규철(李奎哲)의 에처 김춘자(金春子)(二三)는 사소한 감정충돌로 지난 팔일오후 여원을 차저가지고 [illegible] 되여도 귀가 하지안허 마천내남편되는지난 십륙일당지 경찰에 수사원을제출하엿다고한다

全洞民을網羅하야 副業奬勵組創立

東村面黃佺洞에서

【谷山】 황해도곡산군동촌면황대동(東村面黃佺洞) 동민들은 자긔동리를위하야 작년십이월십오일 부업장려조합(副業奬勵組合)을창립하엿다는바 그 세포조직은 단(團)으로하고 간단에는 단장을두어 매년동한긔를 리용하야 십일월십오일부터 이월십오일까지 집신을삼고 새끼를꼬아 피폐된자긔동리를 개척시키다고하며 조합임원은 아래와갓다

組合長 金秉厚 理事 金炳洛 監督 金昌烈、柳基弘、柳鎔源、鄭益儒 會計部 李在根

咸興永生女高普 三十萬圓財團在邇

後援、校友、職員會等活動結果 "우리들의永生"도目前

【咸興】 삼십여년간이라는 긴 셰월을 [illegible] 조선녀자교육긔관으로 [illegible]

永生敎務主任 金相鍋氏 談

[illegible]

◆金夏涉 三百圓◆朴明鉉 二百圓◆劉泰尙 三百圓◆金文善 三百圓◆李炳燮 二百圓◆申鶴定 三百圓◆趙鍾求 二百圓◆黃振模 一二百圓◆張商洞 千圓◆韓格明 二百圓◆金淸妓 五百圓◆金明學 五百圓◆韓基邦 千圓◆韓孫範 五百圓◆李英植 三百五十圓◆李明植 三百圓

城津市內에도 天然痘去益猖獗

벌서死亡者도多數

【城津】 귀보=성진시내에 천연두환자가 발생하야 성진서와 성진읍에서는 당황중에 그방역에 노력중 지난번에 읍민남녀로유에게 림시종두를시행하다고한다 [illegible] 지금까지 발견되지 안는 환자가 상당히잇는모양이라고한다

貧困한兄弟에게 白米配給依賴

魯、朱、粱三氏美擧

【南原】 가난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명절이잇스랴만은 [illegible] 에한끼밥이라도 주어달라고 백미 [illegible]

숫발夜學同情 映畵大會盛況

【城津】 성진읍행정(幸町)숫발청년회경영인 숫발야학교는 무산아동의 유일한교육긔관으로 창립이래 [illegible]

六十度의高嶺峻峰 文川郡山間地帶

火田民의生活를차저서

元山支局 一記者

겨울의 농촌이란 평화의 상징이다! [illegible]

旅舘一室에버려진 저들의自力更生論

[illegible]

朝鮮이나은力士 青鐵城氏의力技

本報支局後援 十九、卄兩日公會堂에서

[illegible]

宿仁公普校에 各界有志寄附

[illegible]

中途退學生의 母校對한赤誠

運動場擴張費寄附

【開城】 개성상업학교운동장확장에 대해서는 지금은이미 해체되 [illegible]

郵便配達의 赤誠

[illegible]

窮民救濟赤誠 分錢收合百七十圓

新興郡下三團體에서

【新興】 함남신흥군하에는작년의 흉작으로인한 궁민이일만수천명을 돌파하야 구제의손을기다리고 잇다함은 [illegible]

情夫마라逃走

【揷橋】 [illegible]

麗水發展의關鍵 商銀誘致運動

【麗水】 [illegible]

本報支局後援의 新春音樂大會

來二十六日로延期

[illegible]

多年間懸案이든 明太肝油組創立

咸南沿岸의當業者를網羅하야 지난十二日新浦에서

【新浦】 [illegible] 명태간유(明太肝油) [illegible]

下東公普校 學年延長期成

【下東】 [illegible]

吉州市內에 涛板工場設置

【吉州】 [illegible]

南國의'눈'消息

═長城═ [illegible]

═井邑═ [illegible]

═綾州═ [illegible]

═三鄕═ [illegible]

═新泰仁═ [illegible]

京城寬勳洞 文化書舘 振替京城一四四六 [illegible]

火賊林巨正 (66)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四의一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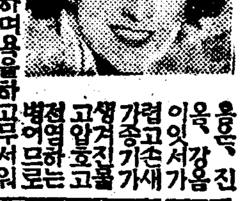
[illegible]

GOLDEN GLUCOSE
第一流 飴菓子製造家의 御愛用品
各主要地에 在庫品豊富
見本文獻은 日本穀産工業會社로請求하시오
黃金飴!!
製造元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發賣元 三菱商事株式會社

はれやか 幸福의糧食!!

淋疾藥(림질약)
무섭고 괴로운 임질이 요사히 치위로 인하야 또다시 생겨서 섯달대목은 닥처오고 귓차너 못살겟는데 무슨 조흔약이 업겟슴니가?
고생하는 분에게 가라처 드리지요
당신네 근처에 잇는 양약방에 네오지링(ネオヂリン)이란 약이 잇는데 한번에 한개식만 먹는것 임으로 달은약과 달녀 위장에 아모 해도 업고 백발백중으로 림질은 꼭 낫슴니다
만약에 근처 양약방에 업거든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振替京城四五七番)으로 주문하시면 곳보내드림니다
藥價 一圓 二圓 三圓 四圓 五圓

好職業
永信商會

옴·피풍 종기엔 히후도

京城西大門 [illegible]

青春의歡喜는 오세로에서

團成社
中舘
野火の兄弟
暁の合唱

經濟解說 米穀對策成案 그內容을考察 (三)

申泰翊

그러나 亦是岡田內閣의米穀根本對策도 그의目標는外地米 그中에잇어서도 朝鮮米의移入을 어떠케하면 그數量을 根本的으로 制限케하는方策가 언을가 함을 腦心하엿든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農林省側에서 提出한參考案은 必要하다고 認할境遇에는 外地米의輸入을 政府가 絶對로 管理하기로 하자는것이엇다 이처럼 外地米의移入을 絶對로 管理하라는것은 곳朝鮮米移入에對하야 完全히 差別的制限을 加하라는것을 正面으로表示한것이엇다 그러나이에對하야 外地側은 勿論 其他의反對가 相當하엿음으로 米穀調査會의答申는 容易히 農林省側의參考案에 傾할을 不許하엿든것이다

×

그다음에는 米穀會特別委員會의經過에 依하야 農省側이 다시 米穀對策試案을 提出하엿다 이試案이란것은 그參考案보다 外地米移入에對한 差別待遇가 相當히 緩和되어 容으로 볼수잇섯다 即米穀統制에 잇서서 日本內地와 朝鮮、臺灣이 各各自治的管理를 하도록하고 이에依하야 必要하다고 認할境遇에는 日本內地는 米穀販賣組合 朝鮮、臺灣에는 統制組合의 施設을하여서 過剩米를 統制하자는것이 그러나 以上은 表面上일 수잇는데까지 外地米의 差別이란點을 안보히라는데서 나온바가 만흔것인만큼 結局에는亦是어느한모퉁이에서라도 外地米差別待遇의 意味를 包含한 文句가 잇고야말것은 必然의 理致이다 웨 이러케 말하는가 하면 그試案中 第十三項에 다음과가튼 文句가 잇섯든때문이다 ▲政府는 前各號의施設外에 米穀統制上 必要하다고 認할 境遇에는 委員會의議를 經由하야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하야 日本內地에잇서서는 道府縣 朝鮮에잇서서는 道、臺灣에잇서서는 州 또는廳에서 管外로 移出하는米에關하야 米의 需給調節上 必要한命令을 할수잇다

×

이것이다 그試案에는 米穀의 移出을 調節키爲하야 必要한命令을 할수잇다고한文句는 解釋에 따라서 그意味가 달라질수잇는 매우模糊한것이엇다 그래서 朝鮮의立場에서본다면 그命令事項이란것은 다만外地米의反對를 막기爲하야 이런不分明한文句를 써가지고 實際에잇서는 外地米에對하야 完全한制限을 加하라는것으로 解釋하는것이 無理가 아니엇다 이結果는 그試案도 亦是容易히 承認을 보지못하고 그동안 波瀾曲折이 거듭되여오다가 畢竟에는 從前의 小委員會에서 米穀對策最後案의大綱을 지어가지고 지난十一月小委員會에서 正式으로最後案을 내여노케되엿든것이다

×

그러면 이最後案의內容은 어떠케되엇든가 이것을다시 말하면 過穀의對策으로 다 엇마마한相異點이 잇는가할 한을 먼저 살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最後案中 이곳에서 말하라는 自治的管理라는것을 어보더라도 그米穀年度에잇서過剩米가잇슬것을 豫想하는境遇에限한것이다 即새로히 米穀年度初 十一月一日에잇서 그當時의在米가 얼마가량 잇는가 또는 過去消費에 빗추어서 그米穀年度內에얼마나 米消費가될것을 豫想하는等 理想의持越額을 基本으로한米穀需給의推算을 한結果가그래도 過剩米가 생긴境遇에는 그日本內地와 朝鮮臺灣에잇서 過剩米의 數量을가지고 各各自治的管理케하야서 米穀統制의 結果가 잇도록 하라는것이다 (續)

自治管理案反對 撤廢陳情을決議

五千名參加、實行委員百名選定 全國米穀同業者大會

【東通大阪電話】關西米穀團은 政府가今議會에 提案코저하는 米穀自治管理案을 反對키爲하야 全國同業者와 一致團結하야猛運動을 起하고저十七日午前十時부터 大阪中之島中央公會堂에서 京阪神米穀團七組合聯合主催로 大會를開하고 北은 北海道로부터東北 關東 中部日本 中國 四國 九州 臺灣 朝鮮各州로부터 五千餘名이 參加하야 約半數는揭外에넘는 盛況으로와선 近藤由太郞氏(京都)開會辭를述하고 岡本新吉氏(大阪)로부터 大會開催에至한 理由를說明하고 來賓祝辭後 森本氏가議長席에着하야 宣言決議를可決하고 各團體로부터百名의 實行委員을選定하고 更히五十名의 上京陳情委員을擧하얏스며 各府縣代表의 五分間演說에移하야 船平과顯『벤도』를 먹어가면서 悲痛한 絶叫를繼續하야 府權을擁護키爲하야 絶對反對의氣勢를 擧하얏다 如斯히하야 大會는午後五時頃에 終하고 同夜上京委員은 午後八時半 大阪驛發東京에가서 政府當局에陳情하리라한다

宣言(略) 決議=吾人은米穀業者의 生存을無視하는米穀自治的管理案에 絶對反對하고 그撤廢를期함 右決議함

舊正關係의換金急 米移出俄然激增

定期側의當限準備物도만허서 今月中六十二萬石?

朝鮮米移出은舊正關係의 換金資急과日本內地定期側의 道具米準備等의關係로 今月上旬중各港共히 豫想外의 出荷를보이어『鮮航會』에對한要求도 上旬十二萬石 中旬二十萬八千五百石에 達하얏는데 下旬은 更히增加되어追加要求量合하야 二十九萬七千石에達하고 一月中의 移出은六十二萬五千五百石에達할 模樣이라한다 그런데下旬移出의 增加는主로大阪定期側의 當限準備米의 關係로보인다

京商議豫算 十一萬圓內外

京城商議에서는 十六日의役員會에서 來年度豫算編成의大綱에就하야 審議한結果大體方針을決定하고 二十一日頃更히懇談會를開하고 二十五、六日頃開催할議員總會에 附議키로되엇는데 豫算總額은十一萬圓內外로 中小商工業의振興과時代의要求에應한調査及事業에重點을置하고잇다

日滿連帶運輸 綜合的規程統一

日滿交通의實質上의 根幹이될것으로서 昨年八月부터 實施된鐵道省朝鮮鐵道局、滿鐵及滿洲國鐵路總局間의 旅客手小荷物連帶運輸는 早急間에暫定的決定으로서 實施되엇기때문에 以來日滿兩當局의規程에相違가잇서서 運輸의手續에幾多의矛盾을生하야 例하면日本商品을비롯하야 國鐵一般運輸規程은 滿洲國에는 適用치안코 그러타고 國際運輸規則에依함에는 日滿關係의特殊的事情이不許하야 日本內地朝鮮滿洲全線的綜合的 旅客及小荷物의 運送上幾多의 不便을 感하고 또 接續相互의當局者間運賃計算等의 手續이 複雜한 現狀에 鑑하야 이統一改善은 各方面으로부터 要望되어잇는데 來二十五、二十六兩日 東京鐵道省에서 鐵道省、朝鮮鐵道局、滿鐵及鐵路總局의綜合的旅客手小荷物 連帶運輸에關한 協議會를開催하기로되엇다 鐵道局에서는營業課大野、中田、妻木各書記가出席할터인데 右連帶運輸規程의統一은 各方面의利害關係가 存在하고잇슴으로 相當難航이 보이나 이것이解決되면朝鮮鐵道局의營業上에도非常한便宜를 與할것은勿論 目下運送業界의要望인 日滿貨物連帶運輸의實施를압두고 名實共히 日滿兩國間運輸의圓滿한 發達을 促進할것이라 期待된다

海運賃低減

京城荷主協會와 =有力店聯携成立=

京城荷主協會에서는 最近鮮出의 旺盛에伴하야 海運界는異常의活氣를呈하고 運賃及附帶費의引上이 一再에不止하야 阪神과如함은 過般의風水害를 理由로서附帶費의引上을敢行한때문에 商工業者가 가장苦痛을感하고 日本內地朝鮮間海運의 貨率低下에研究의結果 同協會에서는 今回大阪、丹波屋回漕店을中心으로서 東京、名古屋、阪神、關門의 有力回漕業者와 聯盟이成立되어 各船主와도交涉하야 低廉한運賃과 割戾制도 設하야 船賃其他의 附帶費共히有利히決定되엿슴으로 此際同回漕店側을利用키로되엿다

朝鮮의人絹事業 自給自足可能視

將來는對外輸出?

朝鮮內의 人絹消費는逐年漸增되어 九年度는 約八百萬圓의移入을 보기에至하얏는데 이現象은數年來의일로 이趨勢와朝鮮이有한工業的優越條件에 着目한斯業者는 朝鮮의人絹自給自足으로延하야는 對滿其他에의 對外輸出을目標로 人絹工場의設立을 期코 이미一部는操業을開始하얏스며 更히今年度부터 새로히擴張施設을行할것等을만한것이잇서서 永登浦의染色工場의新設은 人絹工場의勃興에拍車를加하고 朝鮮의人絹工業은 最近漸次各方面의注目을惹起키에至하얏다 即現在朝鮮內에잇다人絹工場은

朝鮮新織	三〇〇臺
朝鮮織物安養工場	四五〇臺
大昌織物滿京里工場	三〇〇臺

로서 八年度의『레온』絲의朝鮮內消費量은 平壤、京城等에잇는 織機二、三十臺의 小工場을合하야 五十萬封度에不過하엿든것이 九年度는百萬封度로躍進하고 十年度는 朝新의三月부터五十萬封度 朝鮮織物이現在의百八十五臺를 四百五十臺로增設키를目標로 擴張하는中으로 四十萬封度의生産을加하고 大昌織物은이미昨年十一月부터操業을開始하고 七十萬封度의成績을擧하 他의 小工場의 合으로 其封度로 보아 二百萬封度의生産은確實케되엇다 이에依하야 全移入量의 一割五分(約百二十萬圓)은朝鮮에서 自給可能케되엇슴으로 今年度移入數量에 影響되어 三井物産에서도 移入數量의減少量 豫想하고 移入準備에減少量꾀하고잇는터인데 福井系의 染色工場은 昨年永登浦에 工場을 新設하고 十一月부터 操業을 開始하엿슴으로 內地로부터 移入된人絹數量은 從來와如한 飛躍的增加는 難望이오 將來는 朝鮮內의自給自足에서 對外輸出까지 發展할傾向이 看取된다 永登浦染色工場의生産能力은 一個月九百梱으로 一梱은六十反入임으로 一個月五萬四千匹의能力이잇고 從來染色工場이업기때문에 採算不合이던群小工場도 織機만가지고잇으면 採算이마질뿐아니라 昨年四月以來實施되던 日本內地의 染色統制의余波는 必然的으로 日本內地染色工場의 朝鮮進出을促키에 至하얏스며 福井系工場의 永登浦進出은 그先驅가된것으로서 朝鮮이有한工産的優越條件과 相俟하야 朝鮮의染色工業은 人絹工場과並行하야 發達될것으로 異常한期待를가지고잇다 染色工場地帶로서는 永登浦京城中心의 地帶及平壤中心의地帶가 가장有望視되다한다

日本人絹生產 首位로躍進?

昨年主要國生産調査

一九三四年中의 世界主要人絹生産國의 人絹生産高에就하야 某社調査에依하면 左表와如하야 米國을除한 各國은 모다前年보다增産를示하얏다。米國의 生産減退는生絲低와 一般的不況의影響으로보이는데 이에對하야 日本은激增一途를取하야 今年中에는二億一千萬封度로 躍進할것이豫想되여 或은 日本이世界人絹生産國中 首位를占하기에 至할것까지 豫想되기에至하얏다(單位千封度)

	一九三四年	一九三三年
米國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高橋藏相의 財政演說內容

大藏省議에서決定

【東通東京電話】大藏省에서는 再開되는議會劈頭 高橋藏相이試할 財政演說의草案에 關하야 十六日藏相官邸에서 省議를開하고 協議한結果 大要左와如한 內容을述하기로決定하얏다 十八日의閣議에 附議承認을求한後 上奏御裁可를仰키로되엿다

一、昭和十年度豫算案의說明=昭和十年度 豫算에잇서서는 現下時局에鑑하야 國防과農村匡救에 重點을置하고 昨年來各地方에頻發한 災害救濟에就하야서도 相當額을 計上한바잇섯다 歲入에잇서는 經濟界好轉의趨勢에 基한官業收入等에依하야 自然增收를 相當豫想하얏슴에 더욱歲入不足을 補塡키爲하야서는 公債發行에 依치아니할수업는 事情이잇슴으로서 今般臨時利得稅를創設하야 負擔의均衡을圖하는同時 歲入補塡의一助로하기로되엿다

一、經濟界情勢=最近의經濟界는 政府의施設과 相俟하야 相當한回復을볼만한것이잇스나 아즉全面的의回復에 至함에는 一段의努力이 必要함으로써 官民一致協力하야 更生에努力할이 必要하다 特히國際經濟界의前途가 아즉充分한樂觀을不許하고 이때문에 日本經濟界에及할것이 甚大한것이잇서 이點에關하야서는 不斷한注意를 必要가잇다 또日本對外貿易의躍勢를 示하고 今日外國은 特히關稅의步調를 하고잇다 列强의日本에對한 輸入防遏關稅의 引上을 相當히要望함이잇슴으로서 今後에對하야서는 充分警戒를要하는 金利의低下도 一段과普及하고 平穩히推移되고잇스나 更히一層의努力을 希望하고 經濟界의發展에 貢獻하고잇다 特히政府의發行公債의額이 相當巨額에達하는데 日本銀行으로하야금 引受케하고 그消化力에就하야서도 現在에잇서 圓滑히實行하도록 金融界의 努力을期待하고잇다

『製鍊』의金鑛 買收費百萬圓

二十一個所買收假契約 銅山買收에着手

朝鮮製鍊會社에서는 金鑛買收資金으로 百萬圓을 鋼當하고잇는데 最近까지이미 二十一個所의金鑛買收의 假契約을 完了하고 따로이製鍊에 必要한銅山도 買收키로되어 慶南馬山郊外의 白月銅山外同地의 銅鑛數個所의買收 假契約을締結하얏다 그리하야 會社創立과同時에 本契約을 締結하고 必要에應하야 探鑛又는 採鑛事業을開始할 豫定이라한다

創立總會日字 來月五日頃開催

朝鮮金鑛製鍊會社의 株式拂込은 十七日로서 全部完了되엇슴으로 來月五日前後에 殖銀會議室에서 創立總會를開催키로 決定되엇다

一月分의鰯油價 二圓二十錢決定

殖産局發表=一月分鰯油는 朝鮮窒素肥料會社와의 隨意契約으로 二圓二十錢(前月보다四十二錢高)으로決定하얏다

貸出減少 預金激增

定期千萬圓增

京城手形交換所調査、京城組合銀行一月十五日現在預金貸出殘高는 預金一億四千二百六十三萬六千圓 貸出一億三千二百三十萬三千圓으로서 十二月末에 比하야 預金六百四十三萬二千圓의激增을 示한데反하야 貸出은 오히려五百三萬二千圓의 減少를告하얏다 預金의 激增은 定期九百二十六萬圓의激增으로 當座의定期乘替가잇는것으로보이어 往日되다

京城組銀의新記錄 預金一億四千萬圓

遊金放資難으로因해 當座가定期로乘替

京城組合銀行의 十五日現在預金 一億四千二百六十三萬六千圓은 前記錄을 破하는 新記錄이다 定期預金이 客年末에比하야 九百二十六萬七千圓의 增加를 示한 反面 當座預金이五百十一萬圓의 減少를 보이어 當座는 順調이오 最近期에比하면 預金二千百五十三萬四千圓의 激增을 示하얏다 即資金回收는 如實히 示하고잇는바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千二百五十三萬四千圓의 激增을 示하얏다

米國各市場動搖

金約款問題에對한 大審院判決不明으로

【電通紐育十五日發】金約款問題에對한 米國大審院의 判決은 全然豫想을 不許하야 이로各市場은 甚히動搖를招來하고잇스며 特히爲替市場은 그影響이直接的이고도 큼으로 가장 神經過敏이되어잇는데 歐洲側은 大審院이 金約款提議無效의 判決을나린境遇 米國政府의 道具로重大視하고 盛히 弗買를行하는 弗은平價로 引戾하리라는報도잇서서 弗價를 暴騰을演하야 米英크로스는 二仙低의 四弗八七仙 米佛은 一仙八分의三低의 六弗五八仙四分의一로되엇다

米日爲替强保

【紐育十六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比하면 二仙高 賣卅八弗三仙으로 二仙高이다

對外爲替 十七日

【東京電話聯合】東京爲替

對米 賣 廿八弗十六分五 買 廿八弗十六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一片十六分十五

大阪爲替

對米 賣 廿八弗四分一 買 廿八弗八分三

對英 賣 一志一片 買 一志一片卅二分卅一

期米 高價頭重 細刻

前場頑强 昨後場三十一圓〇二錢止와共히 二十八圓四十四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〇二錢인 昨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illegible] ◇中限(賣)[illegible] ◇先限(賣)[illegible]

株式 低迷後에小戾

前場揉合 今前場은 昨後場崩落의餘勢를이어 突込賣도警戒되어 揉合低迷이엇스나 即昨後止에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三十六圓丁、日産五十錢高인 百圓七十錢、大新三十錢低인 八十五圓九十錢、朝取三十錢低인 二十八圓九十錢에 各一本이잇섯다

▲日産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後場小戾 後場은 東新百三十六圓丁에同價 日産百圓九十錢에二十錢高 大新八十五圓八十錢에 十錢低로保合後 小戾이엇다

一落後에小戾

雞伸雞押의 不透明한採合이繼續되어 近來稀有의閑散이더니 昨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九十枚

▲東京電燈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三菱鑛業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東洋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레온新 [illegible] ▲西鮮合同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株式低와相俟하야 價位槪으로內國債五錢軟化、佛貨도十錢下押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二、五〇
一回四分利	九八、九〇
二回四分利	九八、九〇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曇後晴은尙遠

後場에는 東新百三十六圓落로 悅化함을비롯하야 日産百圓關門危殆할의 不勢를 演하야 今前場은利喰物도나오고 低價突込賣도警戒되어 低迷일뿐이엇는데 目前新規好材料의出現이업는限 第二第三의嫌氣投賣를招코야말것가든形勢로서 市勢는 豫想的模勢의모양이엇다

金融緩慢、低金利情勢에는 依然變함이업는터로 이見地에서본다면 弱氣가安當치안치만 內外情勢는 亦是자미업는터이오 産業界에는 過剩生産의困憊가잇서 買氣가不起할뿐아니라 再開가다처오는議會風雲이 어떠할지 掛人은疑心鬼에싸히어잇는마큼 時로嫌氣投가散見되어 市勢는不勢가거듭될뿐인바 曇後晴은 尙遠한感이잇섯다

暴騰도亦難期 買方自重으로

當地二十八圓八十錢과 阪地三十一圓十一錢은 凶作米로서의 絕對天井는아니나 既히凶作의 市勢를演出하엿다고도 볼수잇슴으로 此에서一擧棒上으로 昂騰하기만하지안흘것이다 客年十二月부터 本月에亘하기까지 一段落을告한後 政府米의 買替殘額買上과 日本內地米의 買收減少說又는 季節米買上云云으로 昨今의突高를告한바임으로 此에서 繼續昂騰할이라고 謂키難할뿐아니라 買方으로서도 理想의方針을 取하기는하나 急遽히出動하지안코 警戒自重하는 態度임으로 絕對瓦落을 期待할수업는 그反面에 暴騰도또한 期待할수업다

瓦落은難望? 產地頑强으로

本年은 未曾有의大凶作의 翌年인마큼 農家의態度는 高米價時代가 必至함이라하야 例年보다도 一層强硬하야 窮迫함에도不拘하고 實售不容함으로 集散市場은 豫然하게 減穀期와如히 在庫米는 日本內地의 買注文이 稀薄한과共히 全혀 옴지기지안코 產地出廻는 皆無의 狀態임으로 압호로 大勢는昂騰할 途程바게 남지안엇다 萬一低落市勢가 다고假定하면 此間에 當然히一落을告할것이나 그러나 產地農家뿐만아니라 持米側은 大槪持久의方針으로 減穀期에入하기까지 實惜할모양인즉 期正共히 此의影響을 免하려야免할수업슬것이며 低落하려야 低落할수업는 事情이다

後場强保

後場은 二十八圓四十五錢에 五丁高로始場後 二十一錢에 前場引値를保하고 三、四節四十四錢에 反落하얏다가 結局阪地九十八錢으로 四十八錢으로 止하얏다

市場六感

株

氣候가急히寒冷해저서 本格的冬日氣이니까 市勢에도 쌀쌀한바람이불어서 昨後場一崩이잇더니 今前場과後場는 經濟도업시低迷일뿐▲將來는 新規好材料의出現이업시는 第二、第三의嫌氣投出을 難免할形勢이오 市勢自體가 好轉의動機를만들程度로 賣込이必要할모양▲이왕이면시원스럽게 떠러젓스면조흐련만

米

金融緩慢 低金利 財政膨脹等이 市勢의整理를阻止식히니까 걱정▲阪仁의 鞘는줄어졋다 늘엇다가 當地仕手의 關係를따라左右한다▲一時는二百餘丁까지 縮鞘되더니 昨今에入하야는二百五六十丁으로 擴大 그러나아즉도 擴鞘할餘地가잇는걸 二百八十丁까지는▲今朝阪地三十一圓〇二錢을보고서 當地二十八圓五十三錢이란 누구의作亂?▲結局은阪地三十圓九十七錢止와 共히二十八圓四十錢으로 反落하엿다 結局의 原因은 그무엇! 米의事情으로보아서는 一時的現象에不過하는것은 물은이거니와 到底히追擊買는할수업는걸▲舊正이 臨迫하여도 農家의態度는少毫도戾함이업시 依然賣惜▲果然그賣惜米 何時에出來할지는 몰으나 何如튼出來할때는 其程度마큼 市勢에影響이미칠모양 그러나此는淚然한期待

各地正米

京城不透明 定期의小康을보고 新規商談이업서 前日에比하야弗分弱含인 ㊂三等二七、六〇 四等二七、三〇 一等白米一一、七〇

仁川不變 期正米의一息과 相俟하야 日本內地人氣가잇스나 別로히볼만한商談이업섯다 適品薄이나 市勢는 前日과同樣인 ㊂三等二七、六〇 四等二七、三〇 一等白米一一、七〇

釜山不變 三千五百叺의出廻가잇섯스나 大部分은契約濟로 依然產地의買腰가 强하고 期米의下落을보고 前日同樣인 ㊂三等二七、六〇 四等二七、三〇 一等白米一一、七〇

大邱小康 繼續되는當用小口의買進이잇고 期米의小康과相俟하야 ㊂三等二七、四〇 四等二七、一〇 一等白米一一、〇〇으로 一息市況

木浦締騰 依然適品薄인데다가 原料正租의 出廻가 制高와天候不良으로 念應되어 前日보다 一氣로五十錢奔騰인 ㊂三等二九、二〇 四等二九、〇〇 一等白米一一、四〇

群山一息 產地가 依然强腰를弛하지안흠으로 氣配堅調이나 期米의伸悩와 相俟하야 一息의市況이며 以市勢는 ㊂三等二七、六五 四等二七、四五 一等白米一二、〇〇

南浦昂騰 天候不良에 依한原料正租의 出廻薄으로 市勢도 前日에比하야 二十錢續騰인 ㊂[illegible]

堂島利喰伸悩 【大阪電話】昨後場新高價後의 今前는利喰으로 三十一圓台의不勢를示하얏는데 別로材料가새것이잇는것이아니오 一般의買氣도不衰하야 依然堅調로 伸力이不勢하야 伸悩이며 再次強力한商勢로서 目覚大保合의人氣濃厚하다 賣方 東京側 米穀側 增已株式側 買方 神戶側 中東側 株式側 中谷 岡米 自

商店界消息

▲崔俊植氏는 無盡會社創設을 計畫中이라는바 [illegible]

今日財界(十七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斤	[illegible]

市中金融價	
金	[illegible]
銀	[illegible]

株	(單位圓)
朝取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物	[illegible]

商況(十七日)

金融(十七日)

浴外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實入價 [illegible]

米穀(十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七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고麥 [illegible]

豆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浴外砂糖 [illegible]

仁川正租 [illegible]

金 銀 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壹五壹五四番
代金引換販賣應酬 送料先金 地方註文